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캡션 보스톤총영사관의 주최로 14일 개최된 제 73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참석한 한인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외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독립은 주어진 게 아닌 희생과 피의 대가”

김총영사, 2018 광복절 기념식에서 밝혀
독립유공자 주인공된 보스톤 광복절 기념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제 73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뉴튼 소재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한인사회 단체장들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14일 개최됐다.

보스톤 총영사관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 독립유공자들의 업적과 공로를 치하하고 광복절의 의미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었음을 되새겼다. 지난해 참석했던 김철중 ▶▶6면으로 계속

체이스카드 포인트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휴 24일 종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이 큰 장점이었던 체이스카드가 체이스얼티미티워즈 (Chase Ultimate Rewards)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전환을 동부시간 기준 8월 24일 11시 59분 종료한다.

대한항공 블로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8월 25일부터 체이스와의 포인트전환마일리지 적립 제휴 계약을 종료한다”며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마일리지 적립을 원하면 24일까지 포인트 전환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대한항공과의 계약은 종료되지만 체이스카드 포인트는 여전히 에어 프랑스, 브리티쉬 에어웨이, 싱가포르 항공, 사우스웨스트 등 총 12개사와 제휴되어 있어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하얏트, 메리어트, 리츠칼튼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대한항공과의 제휴 중단으로 인해 한인들의 체이스 카드에 대한 매력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인천행항공권
최저가
\$1,004부터

미서부 원주 7박8일
1인 \$750~

IACE TRAVEL 617.424.8956
월요일 - 금요일 12:00PM - 9:00PM EST | Tel: Free 866-619-4223 | info@iace-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ANN JUNG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ENGEL & VÖLKERS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한국 보훈처 한국전참전용사들에게 직접 메달 수여

피우진 보훈처 장관 "보스톤 오길 정말 잘했다"
80여 참전용사 및 유가족에게 메달 증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 정부를 대표해 보훈처는 매사추세츠 주청사 국기홀(Hall of Flags)에서 80여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11일 수여했다.

보스톤 총영사관과 매사추세츠 보훈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서 피우진 보훈처 장관은 보스톤을 방문해 노병이 된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그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했다.

참전용사와 유가족 그리고 한인 등 총 300여 명이 국기홀을 가득 메웠고 참석자들은 행사의 큰 규모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보스톤에서 개최된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다. 한순용 평통 부회장 등은 "이렇게 큰 행사일줄 몰랐다" 고 말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도 많은 참석자들에 고무된 것처럼 보였다. 피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길 달려왔다. 매사추세츠주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을 뵈

고 보니 보스톤에 오길 정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9일 워싱턴DC를 거쳐 11일 보스톤에 왔다는 피장관은 자신의 먼 길 발걸음을 시작케 한 것이 68년전 젊은 나이에 두려운 발걸음을 떼었던 참전용사들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피장관은 "68년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용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의 자유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향해 출발했다. 그 어려운 첫걸음을 가능케 했던 것은 오직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책임감과 인류애였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피장관은 또 "늦었지만 오늘 한분 한분께 평화의 사도 메달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유엔 깃발아래 자유 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의 사도이시다" 라고 감사를 표했다.

피장관과 김용진 국회의원 그리고 김용현 총영사가 참전용사들과 유가족 들 한명 한명에게 메달을 걸어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피우진 보훈처 장관은 보스톤을 방문해 노병이 된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그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피장관에 앞선 연설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여러분과 전장에서 사망한 전우들의 지원과 희생이 한국을 강한 주권국가로서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며 60년

이 채 안되는 시간에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유엔의 중요한 기부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고 참전용사들의 노력의 대가란 점을 강조했다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1.참전용사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김용현 총영사 2.이날 메달은 이름이 적힌 한국전 참전용사 57명, 유가족 17명 등 총 72명과 적히지 않는 참전용사들 여러 명에게 수여됐다 3. 매사추세츠 주청사 국기홀(Hall of Flags)을 가득 채운 참가자들

▶▶2면에 이어서
다.

이날 메달 수여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한국전 참전용사 존 톰슨(John Thomson) 한국전 참전용사 그레이트보스톤지부 회장은 “과거에도 메달을 받았지만 오늘 또 받게 되어 기쁘다” 며 “명단에는 오르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도 함께 메달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앨버트 맥카시 미 한국전참전용사회 부회장은 “참전용사들과 전몰장병의 유가족들의 존재가 한국전을 결코 잊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아주 오래전에는 여러분이 한국에 갔지만 오늘은 한국이 감사를 전달하기 위해 당신을 찾아왔다” 고 행사의 의미를 지켰했다.

별세한 참전용사 피트 이튼(Pitt Eaton)씨의 아들 닐 이튼씨는 “내 아버지는 의무병이어서 최전방에 투입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셨지만 결국 부

상을 당하셨다” 고 말하고 “(아들로서) 평화의사도 메달을 받게 되어서 영예스럽다. 이를 위해 이곳을 찾은 한국정부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 고 밝혔다.

이날 메달 수여식에는 부산국립국악센터의 전문 무용수, 연주가 등이 참여해 살풀이춤, 거문고 및 가야금 연주, 아리랑 등을 연주해 감동을 주었다.

피장관은 연설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참전용사 여러분 낯선 땅에 흘린 피, 가족을 떠나보고 흘린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참전용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날 메달은 이름이 적힌 한국전 참전용사 57명, 유가족 17명 등 총 72명과 적히지 않은 참전용사들 여러 명에게 수여됐다.

editor@bostonkorea.com

피우진 보훈처 장관 한국전참전용사비 헌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피우진 보훈처 장관이 찰스타운 네이비야드 소재 한국전참전용사 기념탑을 11일 찾아 헌화했다.

매사추세츠 보훈처 프랜시스 유레나 장관과 함께 전몰 장병들에게 화환을 헌정했다. 이자리에는 김용현 총영사, 앨버트 맥카시 미한

국전참전용사회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피 장관은 헌화 기념식이 끝난 후 기념비의 건립 그리고 기념탑 주변의 무궁화 꽃 등에 대해 묻고 환답했다.

이 자리에는 30여명의 한인들이 함께 참여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피우진 보훈처 장관이 찰스타운 네이비야드 소재 한국전참전용사 기념탑을 11일 찾아 헌화했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8, 2018

Class	Time	
PSAT/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I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한인들의 투표가 한인연방의원 탄생 좌우

남궁연씨 및 북부지역 한인 중심 선거기금 모금
샘윤이 심은 씨앗, 덴고가 싹피우는 해 되길
치열한 접전 박빙의 승부 예상, 한표가 소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인사회가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대니얼 고 (Daniel Arrigg Koh 33, 이하 덴고) 후보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 이번 기금모금은 덴고가 출마한 해당 지역구 한인 유권자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로 참석자 40여명은 총 \$11,050을 모아 덴고 선거운동본부에 전달했다.

남궁연 전한인회재판위원장의 앤도버 소재 자택에서 11일 열린 기금모금 만찬에는 주최인 남궁연씨 가족을 비롯 홍석환, 최준영 전 현직 북부 보스톤교회 목사 등 제 3지역구 목회자들, 그리고 덴고와 동창생인 아들을 둔 한인 부부 등 상당수 제 3지역구 한인들이 참석했다.

치과의 신영목 씨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덴고 후보는 “할아버지는 제주에서 외할아버지는 레바논에서 미국에 건너와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

. 지금은 과거처럼 미국에 이민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으며 아메리칸 드림을 잊어버렸다. 아메리칸 드림을 복원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덴고 후보는 특히 “내가 대학 기숙사 TV에서 샘윤이 아시아인 첫 보스톤 시의원에 도전했던 것을 보았으며 이것은 나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다. 결국 나는 샘윤을 롤 모델을 삼아 연방하원직에 도전하게 됐다. 나도 그의 바톤을 지금의 한인 청소년들에게 넘길 것이며, 누군가에게 나를 롤모델로 삼아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인재가 나오길 바란다” 고 밝혔다.

남궁 전위원장은 과거 2년간의 폭설에도 불구하고 김창준 연방하원의원 기금모금 만찬을 열어 미주 한인 사회 후원활동의 원동력이 됐었다고 설명하고 샘윤 보스톤 시의원 기금모금을 했던 일들을 회고기도 했다.

남궁 전위원장은 “이미 한인사회

제3지역구 후보 선거 모금액

대니얼 고	3,007,315
루퍼스 기포즈	1,356,531
로리 트래한	1,134,735
바바라 이탈리아	702,861
주아나 매티어스	472,454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6월 30일 기준	

에서 모금활동이 진행됐으며 이번 모임은 과거의 선거자금 모금과 겹치지 않고 덴고의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3선거구에 위치한 북부보스톤 교회를 주축으로 다문화선교교회, 밀알교회, 안디옥 교회 등이 함께 했다” 고 밝혔다.

남궁 전위원장의 딸 남궁선주씨는 “가족들이 시라큐스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몇번 연기가 되어 5시간이나 기다리다 차를 렌트해 6시간을 보스톤까지 운전해와 이 선거기금모금에 참여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 고



(좌로부터) 남궁선주씨, 치과의 신영목씨, 대니얼 고 연방하원의원 후보, 남궁연 전한인회재판위원장

밝혔다. 선주씨는 “덴고는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며 진실한 사람이며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후보” 라며 그를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덴고 후보는 “한인들은 열정적이며 똑똑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로 가족과 커뮤니티를 돌보고 돕는다. 워싱턴은 이렇게 열정적이며 똑똑한

한인 의원을 만나게 될 것” 간접적으로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히 올해는 9월 4일이 선거일이지만 바로 전날이 레이버데이 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일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덴고 후보측은 “이번 선거는 아주 치열하고 근소한 차이의 승부가 될 것이다. ▶5면으로 계속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แนक्स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백투스쿨 백투건강
정관장 + 10 이벤트

홍이장군, 아이패스, 홍삼톤,
화애락 본 중 1박스 구입시

화애락 본
10포 무료 증정

+10

행사기간 : 8/1 ~ 8/20

홍삼정 240g 구입시
천녹정 30g 2개 무료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1.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대니얼고(Daniel Arrigg Koh 33), 2.제3지역구 한인 유권자들이 11일 덴고의 승리를 지원하며 선거기금을 모아 전달했다

▶▶4면에 이어서

그래서 단 한 표가 중요하다. 어쩌면 오늘 여기에 모인 40여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 며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9월 4일 예비선거까지는 18일 남은 지금 제3지역구 연방 하원의원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덴고를 비롯 바바라 이탈리아, 로리 트레헨, 주아나 메티어스, 루퍼스 기포즈 등 5명이다. 제3지역구 연방 하원 미키 송가스의 은퇴 발표 후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는 무려 12명이므로 승부는 덴고 선거본부의 예견대로 박빙일 것으로 보인다.

덴고 후보는 선거자금으로 보면 단연 1위다. 지난 6월 30일까지 연방 선관위에 보고된 선거기금모금액 총액은 \$3,007,315이다. 이는 2위를 달리는 전 네델란드 대사이자 오바마 선거재정담당이었던 루퍼스 기포즈 후보의 \$1,356,531에 비해 두배가 넘는 금액이다.

제3지역구 소속 타운들(이 지역 한인들은 덴고 후보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Andover, Haverhill, Lawrence, and Methuen,

Acton, Ashby, Ayer, Boxbor-

ough, Carlisle, Chelmsford, Concord, Dracut, Dunstable, Groton, Hudson, Littleton, Lowell, Marlborough, Maynard, Pepperell, Shirley, Stow, Townsend, Tyngsborough, Westford, and Precinct 1 in Sudbury.

Ashburnham, Berlin, Bolton, Clinton, Fitchburg, Gardner, Harvard, Lancaster, Lunenburg, Westminster, and Precincts 1A, 2 and 3 in Winchendon.

editor@bostonkorea.com



김용현 보스톤총영사는 8월 8일 오전 총영사관을 방문한 이강원 재향군인회 보스톤연합회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이강원 신임회장

재향 군인회 중앙회, 보스톤 이강원회장 재임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본국 재향군인회 중앙회는 보스톤연합회 제 4대회장에 이강원씨를 7월 16일 임명했다. 제 2대회장을 역임했던 이강원 씨는 김우혁 3대회장에 이어 4대회장을 다시 맡게 됐다.

김용현 보스톤총영사는 8월 8일 오전 총영사관을 방문한 이강원 재향군인회 보스톤연합회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회장은 보스톤연합회의 현황을 설명했다. 김총영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훌륭한 향군 단체가 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강원 회장은 “보스톤을 중심으로 뉴잉글랜드 5개주 재향군인들의 친

목과 단합 그리고 조국의 안보와 국가관을 고취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재향군인회는 현역 군복무를 마친 한인들과 최소 신병훈련을 수료한 한인들이면 누구나 회원 자격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주 소수의 노년층의 한인들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군의 회원 자격을 설명한 이회장은 “더 많은 한인들이 참가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재향군인회, 한국사랑회에 대한 문의는 이강원회장(339-227-2470)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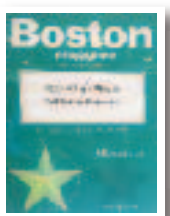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보스톤 한인사회, 드러난 독립유공자 후손들 "광복절 만세"

▶▶1면에 이어서

선생의 후손인 김희순 씨, 노원찬 선생의 후손인 노명호 전 한인회 이사장, 그리고 신현모 선생의 후손인 신좌경 여사(104세)와 가족들은 물론, 올해에는 장노빈 선생의 후손인 장수인 화음오케스트라 단장, 김영순 선생의 후손인 이길자 전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도 새롭게 참여했다.

김충영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독립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나라를 빼앗긴 후 자주와 독립의 열망으로 3천만 겨레가 되찾은 것이다. 자주독립을 위해 생을 바친 우국지사,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흘린 피의 대가였다”며 선조의 독립운동 및 희생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되찾은 밑거름이 됐음을 분명히 했다.

김충영사는 또 “우리 겨레의 독립정신은 광복이후 민주주의와 세계 11위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 뉴잉글랜드 동포사회가 이민 초창기부터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모국의 재건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정부를 대표하여 동포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참석자들에게 알리고 후손의 시선에서 독립운동가들을 회고하는 시간에 큰 비중을 두었다. 김충영사는 독립유공자 김영순, 김철중, 노원찬, 신현모, 장도빈 선생의 독립운동 행정과 이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을 직접 소개하고 한사람씩 단상으로 초청 이야기를 듣도록 했다.

올해 새롭게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지된 이길자 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은 “할머니로부터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에서 교사로 계시면서 신사참배 및 창씨개명 거부 3.1절 독립만세운동을 한 것 등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길자 전회장 친조보인 김영순 선생은 1919

년 비밀결사단체 애국부인회에 가입하여 항일운동을 했다. 독립자금 모금에 힘써 6천원을 임시정부에 송금했다. 일경에 붙들려 1920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990년 대한민국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장수인 화음오케스트라 단장은 “할아버지 산운 장도빈 선생은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셨는데, 누가 독립장을 받으셨나 찾아봤더니 유관순 열사가 독립장을 받으셨다.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다.”며 역사학자, 언론인 등으로 활동했던 할아버지의 활동을 회고했다.

장도빈 선생은 신채호, 양기탁 선생등과 함께 대한매일신보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힌다. 신민회 활동을 했으며 발해고적답사에 주력했다. 일제의 끈질긴 유혹에도 이를 거부했다. 해방후 단국대를 설립해 초대학장, 육사 교수를 역임했다. 1910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모의 사건인 이른바 ‘105인 사건’으로 복간도로 피신했었다.

이날 특히 주목을 받은 사람은 신좌경 여사였다. 독립운동가 신현모 선생의 딸인 신좌경 여사는 올해 9월 14일로 만 104세가 된다. 신 여사는 휠체어를 타고 아들 이강필 아스펜 시스템스 대표와 함께 참여해 여전히 건강한 모습을 선보였다. 이강필 대표는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한국나이로 104세가 되셨다.”고 말하자 신여사는 “우리 아들은 공학박사예요”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신현모 선생은 1917년 미국에 건너와 국민회, 흥사단에 가입했으며, 1932년 귀국해 국사강의록을 제작하고 물산 장려회에 참여해 활동했다. 조선 어학회에 가입 조선어 사전 편찬회 재정위원을 지냈다. 1937년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체포 3년 옥고를 치렀고, 1942년 10월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재구속 당했다가 1943년 9월 18일 기소유예로 출옥했다. 1990년 건국훈장



(좌로부터 직함 생략) 독립운동가 후손인 이길자, 장수인, 이강필, 김희순, 노명호 씨가 유공자들에 대한 기억을 청중에게 전했다



보스톤 총영사관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 독립유공자들의 업적과 공로를 치하하고 광복절의 의미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었음을 되새겼다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동아일보 발행인겸 편집인였던 김철중 선생의 친손자인 김희순씨는 이날 3명의 손자를 대동하고 기념식에 참가했다. 김희순씨는 “자녀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각인시켜주고자 직접 데려왔다”고 밝혔다.

김철중 동아일보 발행인 겸 편집인은 1926년 3월 송진우 선생과 국제 농민회 본부로부터 조선 농민에게 전하는 글을 전달받고 3.1운동 7주년을 맞아 게재. 이로 체포되어 금고 4월에 처했다. 2007년에 정부 표창을 받았다.

독립유공자 노원찬 선생의 친손자 노명호 전 한인회 이사장은 “할아버지가 헬렌켈러

재단의 추천으로 맨아학교 퍼킨스에 초대되어서 가족이 미국으로 오게 됐다”고 밝히고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정직해라, 떳떳해라, 책임져라’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기억했다.

노원찬 선생은 평양 평양 숭실학교에서 3.1만세운동을 추진해 일경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다. 고등법원에서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투옥생활을 했다. 1920년 12월 조선 청년 연합회 창립총회 양흥청년회 대표로 참가 항일 투쟁을 벌였다.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서했다.

editor@bostonkorea.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주최 시카고 학술대회에서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한국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참여해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재미한국학교 학술대회 뉴잉글랜드 협의회 약진

문혜원 교사 30년 근속, 남일 교장 25년 근속상 수상
이하운 학생 나의 꿈 말하기 대상, SAT만점자 3명
서용학 교장 교육부 장관 표창장 수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주최 시카고 학술대회에서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한국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참여해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르네상스 샤움버그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로드아일랜드한인학교 문혜원 교사가 30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했다.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남일 교장도 25년 장기 근속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김소희, 김정자, 남선경 교사, 보스톤 한국학교의 김동규, 노윤경 교사, 퀴지한국학교의 최연식 교사가 10주년 장기 근속상을 수상했다.

북부보스톤한국학교(개교 41년)와 로드아일랜드한국학교(개교 40년)는 개교 40년 이상 학교상을, 보스턴천주교한국학교(개교 31년)와 보스톤한국학교(개교 30년)는 개교 30년 이상 학교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수상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한국학교의 뿌리가 굳건히 내리고 있다는 증거다.

보스턴천주교한국학교의 서용학 교장은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문혜원 교사는 국립국제교육원 원

장 표창장을 각각 수상기도 했다. 국립국어원 주최로 하는 집중연수에서 성요한 교회 이현경 교장이 연수와 시험을 마쳐 수료증을 받기도 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박현아 교사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유일하게 강사로 초청돼 〈느끼고, 맛보고, 보고 듣고 말하는-온몸으로 배우는 한글〉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2018년 제 22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에서는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채 루시(Chae, Lucy 10학년), 김 데이빗(Kim, David 12학년), 최유민(Choi, Yoomin 9학년) 학생이 만점을 받아 수상했다. 특히 뉴잉글랜드한국학교는 미국내에서 가장 많은 3명의 만점자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행사 마지막 날 진행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는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이하운 학생이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저의 이유와 목표〉라는 제목의 발표로 대상을 받아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한편,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7월 5일부터 9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한국학교 협의회장, 교장 초청연수에 이현경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장과 남일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교장이 총영사관의 추천을 받아 참가했다. 남일 교장은 이 연수에서 강사로 초청돼 학교 학급 경영 기법에 관한 사례를 강연했다.

hsb@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서울대 동창회 가을 야유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뉴튼 소재 어번데일 파크(Aubumdale Park)에서 가을 야유회 모임을 9월 8일 토요일 갖는다.

신임 윤은상회장 임기(2018, 7-2019) 시작 첫 번째 행사인 이번 야유회는 서울대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0이며 학생은 무료다. 윤회장은 “아름다운 공원에서 동문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유회에 앞서 이사회 모임이 오전

10:30~11:30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차편이 필요한 사람은 jesungkim@hot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일시: 9월 8일 (토) 오전 11:30 - 오후 2:30

장소: Aubumdale Cove Picnic Area #2 (Aubumdale Park)

주소: 199 West Pine Street, Newton, MA 02466

참석 대상: 서울대 동문 및 그 가족 (참가비: 일인당 \$10; 학생은 무료)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시민권 신청자 급감

시민협회 무료시민권취득 워크샵 참가자 적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가 개최한 시민권취득 워크샵에 예년보다 훨씬 적은 10여명의 한인들만 찾아 서비스를 받았다.

시민협회가 렉싱턴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11일 개최한 시민권취득 워크샵은 시민권신청에서 접수, 사진촬영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탑 시민권신청 기회다.

시민협회는 지난 20여년동안 매년 8월에 이곳 영주권 한인들을 위해 더욱 복잡하고 길어진 시민권의 모든 신청업무를 무료로 도와왔다. 지금까지 시민권워크샵을 통하여 적어도 300명 이상의 한인-시민권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과거 신청서류까지 모두 꼼꼼하게 점검해 위반여부를 가리는 강화방침에 많은 영주권자들이 심리적 위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군 변호사는 “모두가 시민권을 신청했거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심리적 위축을 느끼거나 했을 것”이라며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신청자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더 많은 한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미국 한인의 정치력신장을 위해 시민협회는 매



뉴잉글랜드 시민협회가 개최한 시민권취득 워크샵에 예년보다 훨씬 적은 10여명의 한인들만 찾아 서비스를 받았다

년 무료 시민권취득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시민협회 현-수석 부회장인 추경석, 양미아 그리고, 이용제, 정옥경이사가 봉사하였으며, 변호사로는 김성군 협회이사장이 함께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워크샵엔 예상보다 적은 신청인이 참여하였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영주권-한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어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바닷게와 불가사리 잡으러 해변으로 자연 체험 학습이 가능한 해변 6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다는 무궁무진하여 해수욕 말고도 즐길거리가 많다. 이번 여름 아직 조수 웅덩이에 바다 생물 탐험을 못했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 한다. 아이들은 썰물 때 생기는 물 웅덩이에서 바다 생물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을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다. 그러다 밀물이 되면 해수욕을 즐기면 된다.

1. 윙거식 해변(Wingaersheek Beach) -글로스터

썰물 때 작은 물고기와 모래 새우, 소라게가 가득한 물 웅덩이가 생기고, 밀물 때 따뜻한 물놀이 수영장이 되는 윙거식 해변은 아이들이 바닷가를 탐구하기에 적격이다. 여행 계획을 세울때 조수 일정을 확인해야 하나, 웅덩이는 적어도 조수 일정표에 나타난 시간 앞뒤로 한두시간은 해변에 남아있어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인기가 많은 해변만큼 주차 공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주차는 오후 3시 이후 할인되며 오후 5시 이후에는 무료다. 주차비용은

평일 \$25, 주말 \$30이다.

2. 할리버트 포인트(Hallbut Point) -락포트

주립 공원 내부에 위치한 1900년대에 폐쇄된 오래된 채석장은 맑은 물이 고인 웅덩이가 되어 소라게와 불가사리 채집하기에 그만이다. 실제 해변은 아



니지만 조수 일정표를 확인할 필요없이 언제나 방문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맑은 날씨에는 메인 주의 아가멘티쿠스 산과 뉴햄프셔의 솔스 섬이 보인다. 주차비용은 매사추세츠 주 거주자일 경우 \$5이다.

3. 샌디 포인트 레저베이션(Sandy Point Reservation) -입스위치

입스위치의 플럼 아일랜드 남쪽 끝에 위치한 이 해변은 '어머니 해변'으로도 불린다. 섬의 나머지 해변보다 물이 온화하고 고요한 까닭이다. 썰물 때 조그마한 물놀이 웅덩이가 나타나며 게, 불가사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곳에 방문하기 전이나 후에 인근의 매스어더본의 조파플랫(Joppa Flats) 교육 센터에 들러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한 조수 웅덩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주차자리가 5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려면 해변에 일찍 도착해야 한다. 주차비는 무료이다.

4. 레드락 공원(Red Rock Park) -린

보스톤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공원에는 썰물 때 다채로운 해양식

물과 동물로 채워지는 조수 웅덩이가 있다. 보스톤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바위 게와 조개, 홍합, 불가사리를 찾아보자. 웅덩이 탐구를 마친 후에는 인접한 해변 중의 하나인 킹스비치(King's Beach)나 나한트의 롱비치(Nahant's Long Beach)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것도 좋겠다. 공원의 이름 레드락은 특정 시간에 빨간 조류가 들어와 바위에 붉은 색을 남기기 때문이다. 이 조류에는 매운 냄새가 있다. 린쇼어 드라이브를 따라 주차하면 무료이다.

5. 찬들러 호비 공원(Chandler Hovey Park) -마블헤드

그림 같이 아름다운 마블헤드는 "요트 캐피탈 오브 아메리카" (Yachting

Capital of America)라고 불리운다. 썰물 때 여행을 계획한다면 바위가 많은 바닷가는 게와 아네모네, 불가사리가 가득한 물 웅덩이로 변한다. 주차는 무료이다.

6. Odiome Point State Park -Rye, NH

노스 쇼어를 지나서까지 차를 끌고 뉴햄프셔 주립공원을 방문해야 하나 싶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는 후회없는 하루가 될 것이다. 대부분 바위로 되어 있기에 물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을 꼭 챙겨가는 것이 좋다. 수영이나 일광욕은 할 수 없지만 바위가 많은 해안이라 그 어느 곳 보다 다채로운 해양 생물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입장료는 어른 \$4, 6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 \$2이다. sun@bostonkorea.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KTBC /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가톨릭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샬롬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보스톤 짜라시 토크 21



수다로 푸는 뉴스

보스톤 생활속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 중 기사로 담기에는 어려운 것들을 대담형식으로 풀어 냅니다. 따라서 대개 익명을 쓰며 혹은 실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고 적절히 판단해 주십시오. 혹 제보하실 독자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editor@bostonkorea.com 에 제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집자 주)



갤노트도 1대 사면 1대 무료

기자 1= AT&T 아이폰 프로모션(Bogo Promotion)을 지난주에 이야기 했습니다. 1대를 사면 1대를 무료로 주는 프로모션이 새로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9에도 있습니다. 버라이즌(Verizon)의 바이원게트원(BOGO)프로모션입니다. 갤럭시 노트9이 \$999이니 1천불이 할인되는 것입니다.

기자 2= 한국 언론에서 대대적인 세일을 진행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인가 봅니다. AT&T의 아이폰 8세일보다 훨씬 나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일단 최신 신규 폰을 할인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기자 1= 맞습니다. 단지 신청할 때 반드시 8월 23일 이전에 사전 구매 신청하여야 하며 24개월 할인프로그램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월 \$41.66만 내면 2개의 갤럭시를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자 2= AT&T의 보고 프로모션처럼 다른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1= 일단 이번 할인으로 첫번째 폰은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하지만 두번째 폰은 다양한 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모션 역시 반드시 신규라인을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의 폰을 취소하고 새로 라인을 개설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기존의 전화번호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자 3=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삼성측은 이번 갤럭시 노트9의 판매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떤 전화회사(AT&T, 버라이즌, 티모바일, 스프린트 등)를 선택하더라도 트레이드인 가격을 아주 후하게 줍니다. 한 예로

아이폰 7엔 \$300, 아이폰 6S를 \$250이나 지급합니다. 현재는 아이폰을 사면 겨우 \$100을 지불하는데 그치거든요. 갤럭시 7도 \$250입니다. 또한 프로모션 시간 제한도 지금은 없습니다.

코스트코 2010년 구입한 의자도 리턴 가능

기자 2= 집에 의자가 고장이 났습니다.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것으로 기억해서 코스트코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가지고 오면 리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의자를 가지고 가서 고객센터 직원은 지난 2010년 이래 제가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모든 물건 내역을 훑어 보며 의자가 있었는지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 1= 그런데 2-3년 전까지가 아닌 2010년 구입내역까지 뒤졌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코스트코가 2010년에 구입한 의자 리턴을 받아들인다는 것인가요?

기자 2= 네 그 직원에 따르면 의자는 2010년 이후에 구입한 것이었다면 리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의자를 코스트코에서 구입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결국 의자를 버렸는데 안타깝습니다.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거라면 새 의자로 바



꿀 수 있었는데요.

기자 3= 코스트코는 전자제품에도 아주 관대합니다. 따라서 오래 쓸 물건이라면 가능하면 코스트코에서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배터리 리스타터를 구입했는데 2년이나 된 것을 그냥 교환해줬습니다. 청소기도 마찬가지로요. 만약 다른 곳이었다면 어렵도 없었을 것입니다. 악용해서는 안되겠지만 코스트코의 정책이 그러니 코스트코를 이용할 수 밖에요.

구글의 부정직 드러나

기자 3= AP의 보도입니다. 구글이 소비자를 속이고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행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1= 구글의 비밀브라우저 Incognito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자 3= 아닙니다. 구글의 설정에 보면 고급(Advanced)에 보면 개인정보보안(Privacy and security)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항목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구글이 수집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원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모든 웹 브라우징 정보가 구글에 수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 2= 일단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기업 윤리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구글에게는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기자 1= 사실상 그래서 VPN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글에 로그인만 하지 않으면 결코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브라우저 TOR도 설치해서 동시에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3= 토르에서는 자체 VPN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도 크게 속도는 느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VPN 아이피 소재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Comcast의 사기성 마케팅

기자 2= 컴캐스트가 브로셔를 보내왔는데 인터넷만 250메가에 18불, 400메가에 25불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기자 1= 경험의 법칙에 의하면 그렇게싼 것은 반드시 속임수(catch)가 있습니다. 미세 글자 또는 다른 곳에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컴캐스트에 전화해 보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좋은 플랜은 없습니다.



기자 3= 다시 읽어보니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한달에 18불이 아니라 \$18 more/Mon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TV 등 플랜에 \$18만 더 부과한다는 것이죠. 컴캐스트에 전화하니 그런 플랜은 없답니다.

기자 2= 어쨌든 컴캐스트에 전화하게 했으니 광고는 성공적이라 평가해줘야 하나요?

협찬사 : 루이 루이



louloui.com

617.208.8133

로웰지역 두번째 좋은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좋은 치과, 좋은 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연방정부, 이민신청자들 함정 파놓고 체포

ACLU 소송 과정서 정부 기관 행태 드러나 미리 기다렸다가 인터뷰 오는 이민자 체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연방 정부 기관들이 사전에 협력하여 미국에서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으려고 하는 이민자들을 체포 및 추방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시민자유연맹(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문건에는 연방 공무원들이 주고 받은 서신과 증언 녹취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공조하였다.

미시민자유연맹은 소장에서 연방 정부가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함정(trap)"을 놓았다고 비난했다.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으려는 이민자들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시민자유연맹 보스톤 지부의 매튜 시갈은 인터뷰에서 "정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그런 길을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국토안보국의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으려는 이민자는 비록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 이민서비스국을 방문하는 이민자들을 이민세관집행국이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미시민자유연맹의 주장이다.

미시민자유연맹이 법원에 제출한 250여 페이지 분량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영주권을 심사하는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

의 명단을 이민세관집행국에 보냈다. 이 명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추방 명령을 받았는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 형사 범죄 전과가 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민세관집행국과 협력하여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심사 인터뷰 날짜를 잡고, 이미 어떤 이민자들이 언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이민서비스국 직원들이 사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영주권 신청자들을 체포한 것이다.

이민세관집행국은 영주권 심사 인터뷰를 위해 이민서비스국을 방문하는 이민자들이 동시에 다수 체포될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우려해 일부러 인터뷰 날짜를 다르게 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jsi@bostonkorea.com



USCIS와 ICE가 이민자 체포를 위해 사전에 공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가장 싫어하는 주 MA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추이를 주별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모닝컨설팅트(morningconsult.com)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으로 매사추세츠 주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27%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시기별로 조금씩 변해왔지만,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평

가를 한 적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국정 평가가 가장 높았던 때는 취임 직후로, 국정 지지도는 -4%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주는 와이오밍 주로 31%를 기록했고, 알라바마(30%)가 그 뒤를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크게 바뀐 주는 뉴멕시코 주였다. 작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17%였으나, 올해 7월에는 -13%로 급락했다.

jsi@bostonkorea.com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eoulFoodBoston.com

고국방문 의료관광을 고민하시나요? 의료관광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유형과 고국방문 방식에 따라 서서 신청을 하여 전문 구비에 맞는 병원을 추천해드립니다. 피폐 심정을 통해 지친 권력을 받고 있을 수 있는 의료관광 특권을 통해 준비해부세요.

종합병원 세란병원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151-1번지 세란병원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이규호 모발이식센터
"오직 배꼽계 시술만을 고집합니다"

노상훈 성형외과
노상훈 성형외과

김수남
1-844-DO HURAM (1-844-364-4772)

"사뮤엘 아담스 맥주 다시는 안 마신다"

서머빌 시장 공개적으로 맥주 회사 비난
트럼프 행정부에 친화적인 발언에 반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조셉 커테이턴 서머빌 시장이 보스톤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맥주인 사뮤엘 아담스(Samuel Adams)를 강하게 비난했다. 다시는 사뮤엘 아담스를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커테이턴 시장이 사뮤엘 아담스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사뮤엘 아담스를 제조하는 보스톤 비어 컴패니(Boston Beer Company)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짐 코크 때문이다. 코크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 감면 정책에 감사를 표했다.

코크 회장은 지난 주에 트럼프 대통령 초청을 받고 뉴저지에서 열린 골프 회동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13명의 기업인들이 함께 했는데, 코크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감면 덕분에 미국 맥주 회사들이 외국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백악관 기록에 따르면 코크 회장은 "우리는 38%의 세금을 내면서 20%밖에 안 내는 회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 회사들을)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커테이턴 시장은 지난 12일 저녁 트위터를 통해 "다시는 사뮤엘 아담스 맥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커테이턴 시장은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와 코크 회장을 비난하는 2개의 트윗을 추가로 올렸다.

다시는 사뮤엘 아담스 맥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커테이턴 시장의 결심은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비판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웃 도시인 보스톤의 마티 월시 시장은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과 관련된 어떤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다면,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은 그리 많지가 않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뮤엘 아담스(맥주)가 수치스럽다는 현수막이 보스톤의 한 집에 걸려있다



8월 16일 보스톤글로벌 홈페이지 갈무리

300여개 미 언론, 반 트럼프 사설연대, "우린 적 아냐"

보스톤글로벌 사설연대 제안, 뉴욕타임스 등 동참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대부분의 언론과의 적대적 관계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 언론들이 일제히 나서 반대 캠페인을 벌인다.

15일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NYT를 비롯한 미디어들은 16일자에 언론을 '국민의 적'(enemy of the people)으로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설을 일제히 신는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선 '누구의 적도 아니다'(#Enemy-OfNone)란 해시태그를 단 '포스팅 공격'에 나선다. 언론의 자유, 그리고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번 움직임은 보스톤글로벌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 '적' 등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조의 기사를 신는 언론을 부정해 왔다. 보스톤글로벌은 '자유 언론에 반대하는 더러운 전쟁'을 비판하는 사설을

16일 일제히 신자고 했다. 보스톤글로벌은 참여하는 언론 수가 300여개를 넘는다고 전했다.

보스톤글로벌이 연대의 '영감'을 얻은 사건은 이달 초 CNN의 짐 아코스타 기자가 질문을 하려다 계속 방해당하며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쫓겨났던 일이라고

NYT는 '자유로운 언론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A Free Press Needs You)는 제목의 사설을 실으며 동참했다.

켄 폴슨 전 USA투데이 편집 국장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언론에 적대적인 상황에서) 언론이 뒤로 물러나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언론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평가절하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자유가) 정당함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s914@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미국 중간선거에 부는 '다양성 바람'

무슬림 이민자 여성 2명 하원 후보로 버몬트주 최초 트랜스젠더 주지사 후보 나와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달릴 주자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었던 성소수자나 여성, 무슬림 출신 인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양성이 물결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의 화제는 '버니 샌더스'의 후예'를 자처하는 젊은 여성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민주당 뉴욕주 연방하원의원 14선거구(브롱크스·퀸스)에서 10선의 조크롤리 하원의원을 이기고 후보가 된 것.

여기에 15일엔 미네소타 주의원이자 소말리아 출신 미국인 망명자 일한 오마르(Ilhan Omar)가 미네소타주 제5선거구를 달릴 민주당 연방하원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고, 팔레스타인계 라시다 탈이브(Rashida Tlaib)가 디트로이트 지역 경선에서 승리, 두 무슬림 여성이 중간선거에

서 승리를 위해 달리게 됐다.

오마르의 경우 1982년생으로 36세. 그런데다 무슬림인 여성이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라 단정적으로 예상하긴 어려웠다. 그러나 후보가 된 이상 1962년 이래 공화당 하원의원이 나오지 못했던 미니애폴리스 및 근교를 아우르는 미네소타주 제5선거구에서 오마르의 의회 입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는 평이 나온다.

AP통신은 케냐의 난민캠프를 떠나 12세에 미국에 이민 온 오마르는 주 하원 입성에 이어 또다시 쾌거를 이루게 됐다고 봤다.

또 한 명의 무슬림 여성으로서 의회 입성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는 라시다 탈이브 전 미시간주 하원의원.

CNB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의 반(反)무슬림 발언에 자극받아 미네소타 주에서

만 최소 15명을 포함한 90명의 무슬림들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전국 또는 주 전역에 걸쳐 공직에 출마했다고 전했다.

주지사 후보로 성소수자가 뽑히기도 했다.

버몬트주 주지사가 되기 위해 달릴 민주당 후보로는 크리스틴 홀퀴스트가 뽑혔다. 트랜스젠더가 주요 정당의 주지사 후보가 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홀퀴스트는 자신의 승리에 대해 가디언에 "역사적인 순간이자 표적으로서 공동체(성소수자 그룹)를 공격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힐난"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자신의 승리는 미국의 시골 지역에서 민주화 성공의 길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62세인 홀퀴스트는 지난 2015년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으로 거듭났다. 그는 과거 버몬트주 주지사였던 버니 샌더스와 유사한 공약을 내고 있다. 저임금의 개선,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 등이다.

s914@news1.kr



새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사과했지만 이상한 흑인 일자리 통계

유리한 기간은 더하고 불리한 기간은 빼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세 배 더 많은 흑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사과하며 수정했다고 CNN이 15일 보도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브리핑에 대한 정정: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창출한 일자리 수는 맞게 말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엔 (비교한) 기간이 맞지 않았다. 실수해서 미안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70만개의 흑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그가 백악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70만개의 흑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 19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이라고 한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도 샌더스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몇 시간 지난 뒤 트위터를 통해 "샌더스 대변인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시절 흑인 일자리는 약 300만개 창출되었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경제자문회의가 정정한 수치도 의아한 계산법을 사용했다고 CNN은 지적했다. 경제자문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이후부터의 고용성장세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겹치는 3개월 간의 기록도 포함시켰다는 것.

경제자문회의는 이 기간동안 추가된 14만개 흑인 일자리를 당시 재임 중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기록했다. 그러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경기 침체로 16만2000개의 흑인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가했다. yellowapollo@news1.kr



일한 오마르(가운데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와 그의 가족들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캐나다, 자국산업 보호 위해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검토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캐나다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철강의 관세율을 올리거나 쿼터제를 도입해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빌 모네우 캐나다 재무장관은 14일 "미국이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나라의 (철강) 생산업체들이 캐나다로 수출길을 바꾸고 있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캐나다) 생산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모네우 장관은 "우린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길 원한다"면서 "우리 생산업체와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정부는 특정 국가가 아닌 압연강판 등 특정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올 6월 수입 철

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캐나다도 지난달 1일 미국산 철강 및 소비재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



빌 모네우 캐나다 재무장관

터키, 미국 자동차·술·담배 등 관세율 인상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터키가 승용차와 술·담배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기로 했다.

푸아트 옥타이 터키 부통령은 15일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경제를 공격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은 120%, 술은 140%, 잎담배는 60%로 각각 올리는 법령에 서명했다.

미국산 화장품과 쌀, 석탄에 대한

관세율 또한 모두 이전보다 높아진 다.

현재 미국과 터키 양국은 터키 당국이 억류 중인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의 신병처리 등을 놓고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브런슨 목사는 지난 2016년 터키 내 반(反)정부 조직을 지원한 등의 혐의로 수감됐다가 현재는 건강이 악화돼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정부는 터키 측이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거부하자 이달 10일 터키산 알루미늄·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의 2배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

했다. 그 이후 터키 리라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하는 등 터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의 제재조치에 맞서 전날 미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보이콧'(불매)을 선언하기도 했다.

yellowapollo@news1.kr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존 브레넌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트럼프, 전 CIA 국장 기밀취급권 박탈, 비판에 양갈음?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기밀취급권을 박탈했다.

AFP통신,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새라 샌더스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브레넌 전 국장의 거짓말과 최근의 광적인 발언들 및 행동은 미국이 엄중히 지켜야 하는 기밀과 시설에 대한 접근권에 전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자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나는 미국의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하고 보호할 헌법상 고유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브레넌 전 국장의 기밀취급권이 박탈당한 것은 지난달 미·러 정상회담 이후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반역적"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샌더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혀 사실

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브레넌 전 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 인사인 브레넌 전 국장은 종종 대통령의 자질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판과 공격을 일삼아왔다.

지난달 23일 샌더스 대변인은 "기밀취급권을 갖고 있는 인사가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브레넌을 비롯해 전직 안보·정보당국 관련자들에 대한 기밀취급권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샌더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취급권 박탈을 고려하고 있는 인사는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클래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샬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 앤드루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 등이다. 모두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다.

lchung@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화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주재원 비자(L-2)
- ✓ 특기자 비자(O-1, P-1)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취업이민
- ✓ 교수/연구직 이민
- ✓ 투자비자(E-2)
- ✓ 투자이민(EB-5)
- ✓ 가족초청이민
- ✓ 시민권 신청
- ✓ 주방재판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태극기집회의 역설...좌도 우도 태극기 싫어졌다

10명 중 6명 태극기집회로 태극기 인식 나빠져 태극기 게양 시민에서도 부정적 변화 비율이 높아

(서울=뉴스1) 사건팀 = 태극기는 광복 후 4년이 지난 1949년 지금의 모습으로 정식 공포됐다. 처음으로 태극사과가 그려진 기를 국기로 채택한 것은 그보다 앞선 1883년이다. 이미 그보다 훨씬 전인 고대 유적에서부터 태극 문양이 발견되는 만큼 태극 문양은 대한민국과 1000년 이상을 함께 한 산 역사다.

일제 강점기 태극기는 독립투사들이 지닌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징표였고, 광복 이후에는 국가대표 스포츠팀 앞에 '태극전사' '태극부대' 등의 수식어로 따라붙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는 가로 60m·세로 40m의 대형 태극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뉴스1〉은 광복절 73주년을 맞아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253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태극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들의 일상에서 태극기는 얼마나 가까운지를 들어보았다. 조사에는 남성 120명(47.4%)·여성 133명(52.6%)이 참여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28명(11.1%)·20대 48명(19%)·30대 93명(36.8%)·40대 28명(11.1%)·50대 27명(10.7%)·60대

이상 29명(11.5%)이었다.

◇광복절에 태극기 '게양하겠다' 30% '게양 않겠다' 70%

먼저 태극기를 지근거리에 비치해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었다. '태극기를 집 혹은 회사 등에 비치해 두셨거나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60명(63.2%)이 '아니오'로 답했다.

'국기 게양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해당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국기 게양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지만 게양하지 않는다'(54.5%)고 응답했다. 뒤를 이은 답변은 '국기 게양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게양한다'(18.2%)였다. 두 응답을 합친 비율이 72.7%로 국기 게양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비중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높았다.

하지만 국기 게양일인 광복절에 태극기를 걸겠다는 응답은 76명(30%)으로 걸지 않겠다는 답변 177명(70%)보다 훨씬 적었다. 대부분 광복절이 국기 게양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태극기를 게양할 계획은 없다는 뜻이다.

◇태극기 걸지 않는 그룹, 태극기집회 이후 더 부정적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나 친밀도는 광복절에 태극기를 게양하겠다는 그룹(1번 그룹)과 게양하지 않겠다는 그룹 간(2번 그룹)에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태극기를 보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완벽하게 그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번 그룹에서 50%, 2번 그룹에서 35.6%로 나타났다. '절반 이하로만 그럴 수 있다'는 응답은 1번 그룹에서 9.2%에 그친 반면 2번 그룹에서는 31.6%로 비율이 세 배 이상 뛰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이 자신들의 상징으로 '태극기'를 차용한 이른바 '태극기집회'가 등장한 것이 미친 영향은 그룹별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두 그룹 모두 태극기집회 이후로 태극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극기 게양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은 각각 태극기집회를 계기로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달라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시민혁명운동본부 주최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는 응답이 각각 11.8%와 14.7%였다. '달라졌다'는 응답은 23.7%와 40.1%로, '매우 달라졌다'와 합할 경우 각각 35.5%와 54.8%에 달했다. 광복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쪽이 태극기 집회를 계기로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달라졌다.

세부적으로 1번 그룹에서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응답자 중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25%였고,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그보다 많은 36.7%였다. 2번 그룹은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4.6%,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답변은 68%로 더욱 격차가 컸다.

결국 태극기집회로 상징되는 일부

보수 세력의 반(反)탄핵 시도는 '태극기 이미지'에 있어서만큼은 이념적인 성향을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특히 평소 태극기 게양에 대한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1번 그룹에서조차 태극기집회 이후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이 질문에 답한 213명 중 태극기집회 이후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불과 10.3%(22명)에 그친 반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대답은 59.2%(126명)에 달했다.

기로에 선 한국당 국가주의 주장하다 자기 모순에 빠져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존폐 기로에 선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이 혁신과 회생을 위한 '가치·노선 재정립'에 사활을 걸겠다는 태세지만, 한국당의 지지율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고전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김병준 비대위 구성 이후 발생한 정국 주요 현안과 핵심 키워드, 이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반응과 행보를 살펴보면 문제의 실태와 원인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정계·학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가치재정립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방증하는 핵심 키워드는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대정부 공세카드로 꺼내든 '국가주의'와 최근 논란이 재점화된 '건국절', 보수진영 노선의 핵심축인 안보관의 변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 등이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부터 한국당의 가치재정립이 혁신의 '제1 과제'라고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6.13지방선거 참배 이후 한국당이 수구·냉전 사고에서 벗어나 '민생·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당 비대위와 원내지도부가 이후에도 주요 변곡점과 상징적 사건마다 애매 모호하거나 일관성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취임 후 공세카드로 꺼내든 '국가주의' 논리가 매 사안마다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는 심재철 의원 등 보수 일각에서 제기해 재점화된 '건국절' 논쟁이다. 건국절 제정 및 국경일 지정 움직임에는 국가주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역사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비판해 온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가주의 공세과정에서 변곡점이 된 '박정희 성공신화' 발언 논란도 상징적 장면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비대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성공신화를 갖고 있다. 그 기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국가주의 비판과 모순된다는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가 초반에는 대중의 이목을 다시 한국당으로 다시 끌어오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모순된 입장표명 등으로 논란을 자초하며 위기를 맞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이 위기는 김 위원장 등 지도부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 기존 한국당의 노선에 급선화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당

내 반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보니 빚어지게 된 것이라는 견해에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초반에는 효과를 봤지만 국가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한데다 (건국절 등 논란에서) 이 소신에 맞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더 이상의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관측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도 지난 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국가주의 공세가) 박정희 언급하면서 내용이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다"며 "당내 친박계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기 위한 발언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공세의) 방향은 좋았으나 일관성있게 하셨으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내지도부 또한 유사한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근 '3차 남북정상회담 9월내 평양에서 개최' 합의로 다시 이목을 끌고 있는 남북관계 관련 한국당이 명확한 스탠스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장평화쇼'가 '평양냉면'으로, 표현의 수위만 달라졌다면이지 대북 적대 일변도, 핵폐기 공세 등 근본적 대북·안보관을 근본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탓이다.

최 교수는 "한국당이 다시 지지를 받기 위해선 기무사 계엄문건 등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보진영보다 더 진보로 보일 정도로 달라진 정책·노선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 등 지도부가) 당내 반발을 의식하고 자기 존재감 부각에만 몰두하다 보니,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sgkk@news1.kr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유기준 북한석탄대책TF 단장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광복절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AUG. 17 - AUG. 23, 2018

SPICY CHICKEN KIMCHI FRIES BY CHEF JAE

WE GOT HERE, A KOREAN INSPIRED LEGIT FRIES RECIPE FROM HIP FOOD TRUCK IN AUSTIN, TX!!! NEVER MISS IT!

H마트와 Chi'Lantro의 Jae Kim 셰프가 전하는 매콤한 김치 프라이 레시피! 김치의 매콤함과 바삭 고소한 감자튀김이 만났을 때 최고의 퓨전음식을 경험해보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RESTAURANTEU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유식력으로 성공행진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CONTACT info@marketeatery.com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왕성돈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lb.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lb.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4.99 each	Packed Garlic 패 마늘 5oz/pkg 2\$3 pkg./for	White Peach 백도 \$1.99 lb.
SOONYEWON Tofu 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 - 14-16oz/pkg \$0.99	White Nectarine 화이트 넥타린 \$1.99 lb.	Nagaimo 일본 마 \$4.99 lb.	Lychee 리치 \$2.99 lb.	Gobo 우엉 \$1.99 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Chuck Eye Roll Steak 육동심 스테이크 \$7.99 lb.	Boneless Pork Loin Chop 등심 (쪽창) \$4.99 l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크용 생삼겹살 \$7.99 lb.	Chicken Tenderloin 닭연심 \$2.49 lb.
Sliced Beef Ribeye Roll for Burgers 양념 소불고기 \$6.99 lb.	Marinated Pork Tenderloin 양념 돼지 안심 \$4.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Yellow Croaker 60-100% 통통배 참치 \$2.99 lb.	Dried Dashi Anchovy 데맛있는 다시멸치 \$24.99 3.3 lb/pkg
Conch Meat 소라살 \$8.99 lb.	Milk Fish 밀크피쉬 \$1.99 lb.
TONGTONGBAY Oyster 통통배 생굴 2\$6 3oz/pkg	Live Lobster (11.5 lb/Size) 살아있는 바닷가재 \$8.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AGAWAKI Premium Short Grain Rice 기가마계 쌀 15 lb. \$23.99	KWANGCHUN 광천 녹차김 Green Tea Seasoned Layer Original/Pine - 0.17oz x 100ea/box \$9.99
CJ Cookies White Rice CJ 쌀 쿠키 7.4oz x 120ea/box \$12.99	SAVE PLUS Seasoned Pullock Roe 세이브 플러스 뽕라소 1 lb. \$12.99

고기 와 함께 麵

AT H MART BURLINGTON AND CAMBRIDGE

다 고기 와 함께 麵, 아 이런 거 못 먹어 보셨나?

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에 15 lb. \$9.99	SHIRAKIKU 100% Pure Sesame Oil 시라키쿠 참기름 946 ml \$9.99	DANWA Soba Tsubu Sauce 단와 소바소스 946 ml \$3.99	HAICREIM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 핵오름 메밀국수 3 lb. \$3.99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드셀 중용면 1.5 lb. 2\$5
CJ Dasho Beef Flavor Soup Stock CJ 쇠고기 다시다 2.2 lb. \$9.99	DASIDA 100% Pure Sesame Oil 다시다 참기름 946 ml \$9.99	CHUNGJUNGONE Lunchbox Meat 창정원 런치박스 12oz 2\$5	HORREL FOODS Spam 스펀 12oz 2\$5	CHUNGJUNGONE Dinnom 창정원 수제 떡볶이 Jae Chung Cherry Blossom Hako 20.4oz \$3.99
GUO Pocky 쿵리코 포키 Guo Pocky Cookies & Cream - 3.61-4.75oz \$2.99	SANGA-RA Ramune Drink 상가라 라무네 드링크 All Flavors 7.08 oz x 6ea/pkg \$6.99	HELLO Electric Multi-Noodle Pot HELLO 멀티 라면 포트 1.5L \$18.99	HELLO Fry Pan Hello 후라이팬 28cm/30cm 35% OFF \$4.99	Disposable Roll-Type Scrubber 나는 재빨리 수세미입니다 (일회용) 1x1x1.5in \$4.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typo.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nus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nus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카드 결제 가능)

피해 진술 일관됐지만 행동은 달라...안희정 무죄 근거

1심 재판부, 진술과 다른 행동들에 신빙성 의심
법, 위력 행사 증거 없어...미투운동 영향 전문가 전망 부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미투 1호 판결'로 일컬어지며 주목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행동들'로 인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는 피해자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의 인정 여부'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해자 스스로가 진술 신빙성을 담보하는 행동을 보이지 못했고, 위력의 행사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결국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은 일관적인데...진술과 다른 행동 자주 보여

재판부가 첫 번째로 집중한 지점은 피해자 김지은씨(33)의 '진술 신빙성'이었다.

현행 형법과 판례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내밀한 사적영역에서 벌어지기 쉬운 성범죄에서 피해자 증언 외

에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한 '증언'을 핵심 증거로 채택하는 만큼 고도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요구한다.

재판부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며 "(진술에) 다소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있더라도 신중히 살펴야 한다"며 고심한 흔적을 내비쳤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최초로 피해를 폭로할 때부터 "안 전 지사는 제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며 "한 번도 이성적인 감정을 품어본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 '일관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김씨의 행동은 진술과 다른 점을 보인다는 이유로 '신빙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 간음을 당하고 몇 시간 뒤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쓰거나 피해 당일 피고인과 와인바에 갔다"며 "또 굳이 가식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씨의 진술"이라며 "진술은 일관적이고 모순성이 없어야 하는데 진술과

맞지 않은 행동이 다수 보인 점이 재판부에 신뢰를 주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재판부, '위력' 있었지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두 번째 쟁점인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갖고는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의미를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반문이나 저항이 없었다"며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가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동을 취했고, 그 전후 피고인 및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보아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단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나 안 전 지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김씨의 주장과 달리 안 전 지사가 권위적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고, 무엇보다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나오지 않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지사였던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위력의 존재와 행사는 엄격히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위력의 행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인 송혜미 법률사무소 현율 변호사도 "(김씨가) 위력에 제압됐다고 보기에는 심리상태가 그렇게 피폐해졌다고 보지 않은 것 같다"며 "상대방이 느끼지 못할 만큼 (거부) 표현이 없었다면 안 전 지사로서는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느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투운동 악영향 끼칠 것" vs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나 미투운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송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은 다른 미투 관련 사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나 해고의 가능성 등 '추상적인 위력'에 억압을 당했고, 이를 표현하지 못했던 피해자는 법정에서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권력형 성범죄의 첫 판례"라고 이번 판결을 정의한 송 변호사는 "위력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고 기존 판례 입장으로 해석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반면 노 변호사는 "이번 재판으로 '업무상 위력'을 더욱 좁게 해석한다거나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



BAB KOREAN BISTRO Brookline OPEN

보스톤에서 만나보시기 어려웠던 **한식 메뉴**와
뉴욕에서도 인정받은 **중화 요리**를 이제 보스톤에서 즐기세요.

대하짬과 보양전골 등,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음식을 맛보실수 있습니다.

짜장면, 볶음짬뽕, 사천탕수육
돼지순대국밥, 순대곱창전골
수제 만두, 냉면



MON - THU 11:30 - 10:00
FRI & SAT 11:30 - 10:30
SUN 11:00 - 9:00

TEL 617.383.5575
FAX 617.505.6458

1374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직접 만든 육수가 일품인 냉면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Listing

Business



세탁소 매매

보스톤 서쪽, 새기계, 좋은 위치. 연매상 32만불 이상
플랜트 + 드롭오프 스토어

Asking \$160,000

Business



네일샵 매매

보스톤 북쪽, 3760 스퀘어피트, 새로 단장된 가게

Asking \$490,000

Residential



주거 렌트

에버렛에 위치,
1,700 Sq. Ft.
넓은 주차공간
보스톤과 인접한 위치

월 렌트
\$2,400

Commercial



커머셜 리스

369 Mass. Ave. Arlington, 알링턴 센터, 넓은 주차장,
1,000 s.f. 월 \$3,000 + NNN, 네일, 오피스, 세탁소,
드롭오프 스토어로 적합. Plaza 에 Dunkin Donuts 입주,
Lots of foot traffic

월 렌트 \$3,000

NEW LISTINGS

Commercial



건물 매매

보스톤 남쪽,
세탁소 입점된 단독건물
세탁소와 함께 구입 가능

Asking \$545,000

Business



한국식당 매매

년 매상 \$1,800,000

Asking \$630,000

Commercial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Residential



럭셔리 콘도 매매

1 Charles St. South Unit 812 Boston
Refined luxury residence at 1 Charles,
luxury full service 2Bed 2Bath condo
top of the line finishes throughout,
1 Garage space, Boston Common,
Newbury st 과 근접. 좋은 위치

Asking \$1,299,000

Business



드롭오프 스토어 매매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Asking \$50,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Shrewsbury Full Plant 세탁소
White City Mall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Lots of foot traffic
안정된 수입

Asking \$399,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좋은 로케이션, 풀 플랜트
안정된 수입

Asking \$12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서쪽에 위치, 풀 플랜트
풀에 입점, 대형 주차공간
18년째 운영중

Asking \$315,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99,000

Business



네일샵 매매

교통 좋은 위치, 숙련된 테크니션을
안정된 고객층
연매상 \$350,000 이상

Asking \$180,000

Business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Business



중식당 매매

30년이상 전통 중식당, \$1,700,000 년매상
6,000+ Sq.Ft. 250 좌석
보스톤인근 좋은동네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69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7 Lilac Court, Acton, MA
Asking price: \$420,000
Listing Agent: Jenn Harloon
Phone: 508.331.2092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2 Antique Circle, Sudbury, MA
Asking: \$929,000
Listing Agent: Bill Glanton
Phone: 978.394.2017



Just listed: Single Family
110 Hudson Road, Stow, MA
Asking price: \$675,000
Listing Agent: Kevin Curry
Phone: 978.852.2969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4 Duston Lane, Acton, MA
Asking: \$2,995,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Ken Tlagae
617.959.5500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Frank Mcmanus
317.690.6187

NEW LISTINGS



Just listed: Single family
65 Croton Street
Wellesley, MA
Asking price: \$1,6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84 Wellesley Road
Belmont, MA
Asking price: \$2,800,000
Listing Agent: Frank Mcmanus



Just listed: Single family
292 Mendon Road
Sut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Single family
160 Clinton Street
Hopkinton, MA
Asking price: \$589,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Restaurant w/ Liquor License
Tyngsborough, MA
Asking price: \$145,000
Listing Agent: Ken Tlagae



Just listed: Rental
424 Washington Street - Unit 1
Gloucester, MA
Asking price: \$2,450/mo
Listing Agent: Bill Busiek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M. Keith Peifer
304.963.2923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友 (우)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You adulterous people, don't you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atred toward God? Anyone who choos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becomes an enemy of God. - 야고보서 4:4.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핵(核)시설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중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하면 핵 시설 현황을 포함 비핵화(非核化)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론과 회견을 통해 “북한이 핵시설 내용 등을 신고하는 일에 매우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시설 공개에 따른 미·북 협상진전을 기회로 9월 남북정상회담 진행, 연내 종전선언 완료 등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국의 일부 언론은 “북한이 미국측 핵심(核心) 요구사항인 핵 리스트 제출을 결국 받아들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비핵화 협상이 활기를 띄게 됐고, (한국의) 남북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인용 보도...

이어 “그동안 미·북협상보다 앞서 가지 않겠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활동 반경도 보다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 모두 북한의 핵 보유고통 또는 핵 능력을 줄이는 조치 가 아니라는 평가였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비(非)핵화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래도 북한측에선 별다른 조치없이 종전 선언을 주장했었고 미·북(美·北) 협상은 답보상태가 계속 되었는데 북한이 핵시설 리스트를 공개하겠다는 제의에 미·북 그리고 한국의 남북간 현상에 새 기운이 트인 것.

다만 북한이 내놓는 핵시설 좌표가 열쇠.

핵시설 리스트뿐만 아니라 핵탄두, 핵물질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核)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조야(朝野)에서 나오고 있다.

북미 양측은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비핵화(非核化)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북(美·北)간 실무회담이 시작되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중 방북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청와대는 미·북협상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면 9월중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종전 선언(宣言)과 관련한 중재에 나서는 것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남북한(南北韓) 고위회담을 하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9월 중 평양(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했으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핵시설 리스트 공개 등 미북(美北)간 협의가 완벽하게 이뤄진 뒤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북한이 핵시설 리스트 공개 등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미북(美北) 대화 결과에 따라 조만간 남북간 회담 일정과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조선일보는 “자기 발등 짚은 문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동지(同紙)는 선우정 사회부장 이름으로 “8·15 건국일을 인정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초청했다면 북(北)의 건국일 회담요구에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역사를 깔아뭉개고 무슨 외교를 하려하는가”며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 메스컴은 북한의 9·9절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라고 표현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의미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도로 축소하는 잣대를 북한에 적용한 것.

9·9절은 북한의 건국일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최대 애국 유산인 우리 국가의 창건 일흔돌”이라며 “대경사”라고 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1910년 국권(國權) 상실 이후 한(韓)민족이 국제법적으로 국민, 영토, 정부를 회복한 날은 이날 뿐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년전 ‘8월 15일 건국’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열 빠진 주장”이라 했다. 대통령이 된 뒤 그 연장선상에서 “(20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 했다.

이점에선 김정은 사고가 합리적이다. 3·1 운동과 임시정부는 빛나는 역사다. 헌법 문구대로 대한민국의 법통(法統)이 여기서 출발한다.

대한민국은 그들이 축적한 노력과 국제정세 변화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 이는 사관(史觀)에 따라 달리 볼 문제가 아니다. 그냥 ‘사실’이다.

3·1운동을 찬양한다고 1948년 8월 15일을 깔아뭉개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정부가 나서서 밝는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집 탓이다. 아집이 ‘건국 70주년’ 자취를 이 땅에서 지웠다.

그빈자리에 북한이 달려들었다. 남·남 갈 등을 노리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최대 유산’인 ‘국가 창건 일흔돌’을 쫓아 넣은 것.

북한의 ‘9·9절 승부수’는 예고된 일.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올해 9·9절을 ‘대경사’로 평창동계 올림픽을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규정했었다.

한국정부를 통해 ‘비핵화(非核化)’의사를 흘리면서 평창에 대표단과 선수단을 보냈다. 북의 참여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한반도(韓半島) 긴장을 완화해 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끈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한국 차례다. 민족의 위상을 과시했으니 우리의 ‘대경사(大慶事)’도 빛내라는 것이 북한이 내민 청구서다.

북한의 9·9절 카드를 받아칠 한국의 승부수는 8·15 카드였다.

‘8·15 건국일’을 “건국 영웅의 최대 유산”이라며 김정은을 서울로 초청했었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었을 수도... 북한의 ‘9·9절’ 카드를 무력화(無力化)시킬 수도...

友우: “벗 우”는 十(십자가)를 또 따라가는 又: “또 우”자와 합성 됐다. “十(십자가)”는 하나님 사랑(十)과 이웃 사랑(一)이 합쳐진 표현: 쉽게 풀면 十(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을 쫓아가는 “又(또 우) 友”는 그리스도에 수님을 믿는 신자(信者)들을 그린다.

이 友字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따라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十(십자가)를 따라사는 사람은 모두 友: “十의 벗” - 이 세상은 물론 하늘나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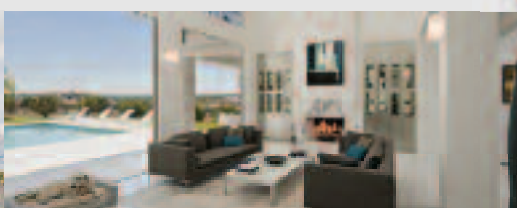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Jay Lee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잘 하겠습니다!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2 family house, Newton
투자나 거주에 적합
4 Pearl-Peabody St.

ASKING **\$1,490,000**



2 family house, Newton
good for investment
48-50 Lexington St.

ASKING **\$1,250,000**



로드아일랜드 "뉴-포트 맨션"
관광지역 한 복판에
성업중인 스시 식당

ASKING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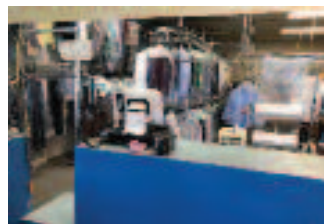
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

ASKING **\$375,000**



Springfield 지역 성업중
Full Plant Cleaner
Shirts 포함

ASKING **\$160,000**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Anna Jung
617.780.1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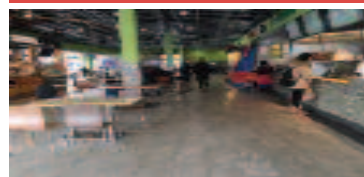


Sung Bin Oh
978.505.3736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Allston, Brighton
한국 식당

ASKING **\$168,0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

ASKING **\$200,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F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총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총가정선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위원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위원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978-274-5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회	857-998-7043
재한인회	781-854-8880
세탁인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E협회	781-424-5269
대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항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항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상동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781-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에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뱀열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트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프룬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권시영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건강식품	
보스톤정판정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밍사이딩 청문	617-999-9616
아일랜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셀(南)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퓨영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굴방	617-437-0378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위너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 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프루먼셀(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먼셀(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Premier Ralty Group	617-642-3156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생선가게	
매터팬피시마켓	617-298-2260
매일잔치피시	781-862-7984
보스톤피시	617-282-2980
브룩린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키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스시피시마켓	617-522-2028
K씨푸드	781-961-1114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울스톤)	617-208-8540
가주순두부 (케임브리지)	617-864-6668
고향식당	413-586-2682
교토	401-232-3838
KIKU(한&일식)	603-882-8644
가유가	617-566-8888
뉴장수갈비	781-272-3787
다빈	781-860-0171
다오라스시	508-587-3920
다이아마이트	603-889-0055
다케무리일식	617-492-6700
리틀부산	978-897-5107
서울식당	617-973-6680
만나스시	781-648-8878
명동일번지	617-206-3229
미가	860-895-8739
미나도	508-647-0495
미나토 도시	617-731-5200
미소노	617-325-9919
Mr. 스시	617-731-1122
Mr. 스시 (Arlington)	781-643-4175
불판	781-863-2800
본촌	617-254-8888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그룹	617-871-1482
퀸지소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온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살롱치	978-263-4592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문허어림 보정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동환 보험	781-325-3406
조준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초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뉴스타부동산	781-654-5281
애나정 뉴스타부동산	617-780-1675
손득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위너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 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프루먼셀(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먼셀(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Premier Ralty Group	617-642-3156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생선가게	
매터팬피시마켓	617-298-2260

아들을 잡아먹은 사투르누스

필자는 아직도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 수요일의 영어철자 말이다. 쓸 때마다 wed-nes-day라고 발음하면서 적어야 한다. 철자가 어렵기로는 우리가 사는 Massachusetts도 마찬가지이다. 중간에 -s-가 두 개였는지, -t-가 두 개였는지 늘 자신이 없다. 아무튼 Wednesday는 왜 이런 복잡한 철자를 가지게 되었을까?

요일의 이름들이 대개 라틴어에서 왔지만 몇 개는 순수 게르만족 신들의 이름에서 왔다. 다시 말하면 역설적이게도 몇 개의 이름은 순수 앵글로-색슨 어휘인 셈이다. 우선 Wednesday는 게르만족의 조상 신인 Odin에서 유래한다. 영국 동남부를 점령한 바이킹 족들이 영어에 이식시킨 Odin은 고대영어에서 Woden이 되었고 이 신을 기념하는 날이 Woden's Day였기 때문에 Wednesday란 단어가 생겨났다. 게르만 족의 사촌인 독일어에서는 일주일의 중간이란 뜻에서 Mittwoch라 한다. 참으로 외기 편하고 발음하기 편하다.

화요일 Tuesday는 게르만 족 하늘의 신이자 전쟁의 신인 Tiu를 기념하는 날이다. 겉보기에 화요일은 순수 게르만족의 신을 기념하는 이름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쟁의 신 Mars를 기념하는 라틴어 dies Martis를 번역하다보니 마침 자기네 신들 중에도 전쟁의 신이 있어서 이와 대치시킨 것이다. 말하자면 로마의 날짜를 자기네 신으로 대치시킨 것일 뿐이다.

목요일 Thursday는 천둥과 번개의 신인 Thor를 기념하는 날에서 왔다. 덴마크어와 스웨덴어에는 Torsdag라는 형태로 남

아있다. 목요일 역시 사실은 라틴어에서 주피터 신을 기념하는 날이란 뜻의 Jovis dies를 번역하면서 자기네 신으로 대치시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신화의 주피터와 바이킹 족의 토르가 맞먹는 신이다. 최근에 나온 영화 <Thor>는 한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어서 의아했다.

금요일 Friday는 Odin의 부인이자 하늘의 여신이며 결혼한 사랑의 신인 Frige를 기념하는 날이다. 로마의 신과는 상관없는 순수 게르만 신에서 유래한 요일이름이다. 이 신의 이름은 오늘날 독일어 Frau(부인)란 단어에 남아있다.

토요일 Saturday는 라틴어 Saturni dies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로마 사람들이 숭배한 Saturn은 원래 농사와 원예의 신이었지만 낡은 것을 새것으로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혁명과 자기 파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일요일 Sunday는 태양의 날이라는 라틴어 dies solis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다만 태양을 뜻하는 라틴어 sol-을 영어 단어 Sun으로 대치했을 뿐이다. 라틴어 sol-은 solar(태양의), solstice(태양이 멈추는 지점, 하지점, 동지점) 등에서 볼 수 있다.

월요일 Monday는 라틴어 Lunæ dies를 번역한 것이다. 라틴어로 luna는 '달'이므로 이를 게르만어 Moon으로 옮겨서 day와 결합한 것이다. 달은 서양에서 어두운 이미지로 받아들여진다. 태양력을 solar calendar라 하고 태음력을 lunar calendar라 한다. 야밤에 달을 쳐다보면서 괴성을 지르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

런 사람을 영어로 lunatic이라 한다.

서양에서는 일요일이 주일의 첫날이고, 월요일이 두 번째 날이다. 미국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데 한국 달력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달의 날인 월요일은 왠지 싫다. 월요일이라는 게 이미 이름에서부터 정해진 것은 아닐까.

독일어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Montag, Dienstag, Donnerstag, Freitag, Samstag, Sonntag 등의 독일어 요일 이름에서 마지막 철자 -g가 영어에서 왜 사라졌는지 궁금할 것이다.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 -g는 고대영어에서부터 사라지기 시

작했다. 그 결과독일어 tag는 영어에서 day가 되었을 뿐 아니라 twenty란 단어도 고대영어에서는 twentig였다. 독일어 일인칭 대명사 Ich도 고대영어에서는 ic였지만 현대영어에서는 어미가 사라지고 I만 남았다. 일인칭 대명사 I를 대문자로 쓴 이유는 '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소문자 i가 잘 보이지 않아서였다. 필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아이슬란드어에서는 Eg라 쓰지만 철자 -g는 발음하지 않는다. 유럽 언어에서 이 단어는 모두 공통의 어원에서 나왔는데 라틴어에서는 ego이다.



니콜라스 푸생, <사투르누스 및 사계절과 함께 있는 헬리오스와 파이돈>, 인터넷 자료

보스톤의 한글교육, 보스톤한국학교가 책임집니다!

- ☒ 교재가 확실하다!
- ☒ 교사진이 확실하다!
- ☒ 한국문화가 확실하다!

첫째,	뉴잉글랜드 유일의 단계별 학습교재 이높이(Enopi) 교재 사용!
둘째,	교사 경험 3년 이상의 한국, 미국 교사자격증 보유교사 유치!
셋째,	붓글씨, 탈춤, K-POP, 전통놀이, 한국요리 체험학습!

결론은 보스톤 한국학교입니다!

4 years old - 8th grader

BKS 등록금 안내

Tuition: Half Year (15 & 1/2 Saturdays)

Regular Classes:

\$315 (one child)

\$590 (two children)

\$780 (three children)

Afternoon Class: \$195 (lunch included)

개학날: Sep 8, 2018

준비물: 필기도구, 3ring 바인더, 물병, 스낵

30년 전통의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2018-2019 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강상철 교장 Email: uno@sangkang.com Tel: 978-509-8708 Web: www.bostonkoreanschool.org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uany Memorial Korean Church

2018년 6월10일부터 9월2일까지
주일 미사 (Sunday)
 오전 7시 30분 (Korean)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30분 (Korean)
 (7월 첫 주부터 한시적으로 11시로 변경)
 오후 4시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심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 www.standrew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살을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HAPPY 해피돌상

고품질 전통상 대머 (배달상, 등반)
한국 최대의 전국적인 전통상 전문점, 소중함 내 바깥에 있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저렴하고 푸짐하게!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하이트론스 16주년 대잔치

파나소닉 MA70 특별세일!

정호의 찬신

선착순 30대

하루 카피한잔 값으로 고급 안마의자를 구입하세요!

\$2.1 /월

Reg ~~\$7,000~~ **\$81** /월 60개월 + Tax



미 최대 규모 명품 안마의자 전시장 하이트론스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INADA DREAMWAVE

106개 에어백으로 혈관을 자극해 몸에 쌓인 노폐물을 풀어주고, 노인성 질환, 당뇨병자에게 특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250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J7

3명의 프로 안마사가 동시에 156가지 기술을 발휘, 단순한 롤러가 아닌 마사지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을 완벽하게 구현한 강력한 안마의자

\$167 /월 60개월 + Tax



INADA NEST

~~\$2,900~~ **\$6,000**

24개월 + Tax



INADA FLEX 3S

~~\$7,500~~ **\$4,300**

12개월 + Tax



PANASONIC MA73

\$223 /월 36개월 + Tax



OREST OS 5000

\$114 /월 48개월 + Tax



PANASONIC 30007

\$100 /월 36개월 + Tax



POSITIVE POSTURE BRIO

~~\$6,900~~ **\$4,500**

24개월 + Tax



OSAKI OS Pro Maestro

~~\$8,700~~ **\$6,200**

24개월 + Tax



FUJIIRYOKI FJ 7900

\$158 /월 36개월 + Tax



COZZIA CZ 710 Qi SE

\$166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10

\$83 /월 24개월 + Tax

60년 전통의 미태리 명품 침대 매그니플렉스

어떤상황에서도 허리를 깨끗하게 세워주는 인체공학 의자

미동체어



목디스크·허리디스크 및 각종 통증에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집침문화의 혁명 모션베드 출시

magniflex



사람을 중심으로 의자를 만든다!

미동체어의 기술은 장시간 앉아 있는 회사원, 학생에게 자세를 유도/개선합니다. 슬라이딩 기능을 활용하여 척추를 건강하게 하고, 나쁜 자세를 잡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 Wing Mechanism** 장시간 작업시 어깨를 위한 7종의 탄력적 문맥을 제공하여 몸이 편안함을 느끼고, 근육과 뼈를 다리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합니다.
- Sliding Mechanism** 허벅지 관절을 위한 부속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 앉은 자세를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며, 10cm 이상 110도의 등각을 형성하고 근육을 보호합니다.

미동체어 입하 Special Price ~~\$890~~ **\$599**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몰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 몰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Suite B2&B3,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k.,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Ellicott City))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만킨도넛 매장 옆)
201-941-0010

'공작', 로튼 토마토 신선도 100% 가디언 등 매체 호평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영화 '공작'(윤종빈 감독)이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를 기록했다.

10일(현지시간) '공작'이 북미 개봉을 앞둔 가운데 글로벌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언론 매체 및 평론가들의 평가를 반영한 신선도 지수 100%를 기록했다.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는 미 영화 관련 웹사이트인 로튼 토마토(Rotten Tomatoes)에서 자체적으로 엄정한 평론가와 유력 매체 의견을 간단하게 수치화시킨 것으로, 영화계에서 완성도와 작품성에 대한 척도로 신뢰받는 지수다.

현재 '공작'의 신선도 지수를 매긴 곳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버라이어티, 할리우드 리포터 등 해외 유력 매체들이다.

먼저, 가디언(Guardian)은 "윤종빈 감독은 클래식한 이종간첩 장르의 고유한 문법을 능숙하게 구현한다. 그리고 장르의 매력에 빠진 관객들은, 그가 첩보장르에 가한 변주를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는 "팽팽하게 조여오



며 서서히 마음을 사로잡는 고전적인 첩보 스릴러" 인디와이어(indieWire)는 "'공작'은 정치 극장의 커튼 뒤를 들여다보는 대서사극이다. 많은 분량의 대사 와 비틀기로, 분단된 남과 북이 실제로는 어떻게 서로를 접촉하고 있었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라며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밀도 높은 서스펜스를 선사한 영화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또한 버라이어티(Variety)는 "복잡한 첩보전과 정치적 사기를 빈틈없이 잘 담아낸 수작" 할리우드 리포터

(Hollywood Reporter)는 "흔란스럽고 매력적으로 담아내며, 오랜 시간을 아우르는 실화 영화가 때마침 나타났다" 등 실화를 바탕으로 한 흡입력 있는 스토리가 주는 묵직한 울림과 강렬한 드라마에 대한 호평을 쏟아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한의 실체를 파헤치던 안기부 스카이가 남북 고위층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첩보극이다. 지난 8일 개봉했다.

eujenej@news1.kr



마동석, '신과함께2'로 4번째 천만행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배우 마동석이 '신과함께-인과 연'(김용화 감독)의 천만 관객 돌파로 4번째 천만 영화를 프로필에 올렸다.

마동석은 데뷔 이래 수십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그가 출연한 모든 영화의 전체 관객수만 약 1억명을 넘겼다. 그중 주연으로 출연한 '부산행'과 '신과함께2' 특별출연한 '베테랑'과 '신과함께1' 등 출연작 중 4편이 천만관객이 선택한 영화가 됐다.

마동석은 '신과함께-인과연'에서 해원택(주지훈)과 덕춘(김항기)의 과거를 풀어내고 이승과 저승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주요 배역 성주신 역을 맡았

다. 짧은 팔뚝에 우직한 느낌을 주는 그는 반대로 섬세한 연기력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왔다.

이번 '신과함께-인과 연'에서도 절대 인간미, 유머러스함 속에 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공과, 깊이 있는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마동석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전통의 특징을 담은 성주신으로 또 하나의 '한국형 히어로'를 만들어낸 마동석은 그의 팔뚝만큼이나 단단하고 특별한 연기력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의 영화계에 빠질 수 없는 존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eujenej@news1.kr

8월 19일 - 8월 25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휴식이 필요한

●운수:주어진 상황에 만족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변화나 변동은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금전:수입이 떨어집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정:모든 것을 다 내세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0, 25일 길일. 19, 21일 주의.

소띠 |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운수:공연히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전:마음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일의 성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급할 때에는 도리어 손해로 끝나게 됩니다. ●애정:현실에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군요. 연애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한 주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범띠 | 위치가 올라가는

●운수:기가 상승하니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는 때입니다. 직장인은 승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전:이익이나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일이 풀리면서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애정: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했을 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2,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토끼띠 | 일석이조의 운세

●운수:아무런 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해보세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금전: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게 되면서 금전운세가 호전됩니다. 황재운도 찾아드는 일석이조의 운세입니다. ●애정: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도록 하세요.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2,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용띠 | 자신을 잘 다스려야

●운수:별다른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지거나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간만 잘 참고 넘어가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금전:열매를 보려면 땅에 씨앗을 뿌려서 가꾸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면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생활의 안정을 깨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

뱀띠 | 호조를 띠게

●운수:사업상으로 크게 도움 받을 수 있는 후원자와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진지한 말을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금전:판매가 쉽게 이루어지고 투자관계도 호조를 띠게 됩니다. 당장 큰 이익은 얻을 수 없더라도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애정:속 이야기나 인생 다투리까지 무리 없이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1,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말띠 | 핑크 빛 무드가 감돌고

●운수:생각에 그치지 말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큰 수확이 보장되는 때입니다. ●금전:거칠 것이 없는 시기이니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일 것입니다. 특히 한 우물을 파면 큰 결실을 얻게 됩니다. ●애정:애정문제에 있어서도 핑크 빛 무드가 감돌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시기로 최상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0, 22일 길일. 24, 25일 주의.

양띠 | 신중히 행동하도록

●운수: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결려온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를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애정:쉽게 용서할 수가 없더라도 미움을 품고 살면 자신의 삶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5일 주의.

원숭이띠 |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잡아야

●운수:다음 계획을 목표로 하여 자신의 발판을 확고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잡아 하겠습니까. ●금전:마무리 과정에서 망설이다가는 뿌린 만큼 못 거둘 수 있습니다. 행동은 신속하게 생각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애정:특별한 감정으로 만나고 있어도 아직은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때가 아닙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3일 주의.

닭띠 | 침착하게 대처하는

●운수:문제를 회피할수록 점점 더 문제 속으로 빠져들기만 합니다.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와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실물수가 있으니 현금이나 귀중품은 될 수 있는 대로 지니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얼굴을 마주보며 하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20, 25일 길일. 19, 24일 주의.

개띠 | 변화의 바람이

●운수:세상 그 어떤 일도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나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세요. ●금전:생활의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애정:자신도 어찌할 수 없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0, 22일 길일. 19, 25일 주의.

돼지띠 | 양보를 많이 해야

●운수:인간관계에서 양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아직은 결과가 없고 시도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금전: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승부의 결정수가 주어질 것입니다. ●애정: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4일 길일. 20, 23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영어 통역해 주실 분 구합니다.
T. 781-953-5816

캠브리지에 위치한 작은 한국식당에서 성실이 일하
실분을 구합니다. 월,수 (근무시간: 10:30-20:30)
Email, kksfoods47@gmail.com

"보고 싶었소" 이병헌 · 김태리, 본격 ♥ 시작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
자 = "보고 싶었소" '미스터션
사인' 이병헌과 김태리가 '결별'
하지 않기로 했다.

tvN 주말드라마 '미스터션사
인'(극본 김은숙 연출 이은복) 12
회에서 고애신(김태리 분)과 유
진초이(이병헌 분)는 신분의 벽
을 넘어 서로 한결을 더 가까워
졌다.

고애신은 장포수(최무성 분)
가 시킨 심부름을 마친 후 "스승
님에게 제게 일을 시키기 전 저
는 그(유진초이)를 만나러 가려
고 했다. 그러다 멈췄고 멈췄기
때문에 그를 만난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그의 선택은 늘 조용
하고 무거웠고 차갑게도 보였는
데, 걸음은 언제나 옳은 쪽으로
걸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가
졌던 모든 마음들이 후회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고애신은 "나는 이제 그를 만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놓치는 것이 맞다. 놓치
지 않으면 아주 많은 것을 걸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고애신은 이완익의 집에서
찾아온 유진초이가 받은 편지를
들고 유진초이를 찾아왔다. 유
진초이는 고애신과의 관계에 대
해서 다시 생각했다.

며칠 후 유진초이는 다시 고
애신을 찾아갔다. 그리고 당분
간 더 조선에 남아있겠다고 말
했다. 고애신은 "난 죽는 순간까
지 고가 애신이다. 귀하와 도모
할 수 있는 그 어떤 미래도 없을
거다"고 말했다.

유진초이는 "어제는 귀하께
내 삶에 없었는데 오늘은 있다.
그걸로 됐다"고 화답했다. 유진
초이는 고애신에게 신식 총을
쏘는 법을 알려주며 전보다 더
욱 돈독해진 감정을 쌓았다.

두 사람은 계속 만남을 가졌
다.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두
사람이기에 서로 암호와 서신을
주고 받는 장소를 정했다. 약방
에 편지를 두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공유했다. 유진초
이는 고애신의 편지를 읽기 위



해 한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
고, 고애신은 유진초이와 공감
대를 만들기 위해 영어 공부를
했다.

편지를 주고 받던 두 사람은

함께 말을 타고, 바다를 보러 가
는 등 온전히 둘만의 공간에서
둘만의 시간을 나눴다.

ichi@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라디오스타' 주호민 "신과함께" 정산, 모든 제작 · 상영 마무리 후

(서울=뉴스1스타) 김주윤 기자 = '라디오스타' 주호민이 '신과함께' 정산 관련 질문에 아직이라고 대답했다.

15일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이 출연해 '신과함께' 정산과 차태현의 캐스팅에 관해 언급했다.

주호민은 최근 발당을 샀다는 말이 들린다는 MC의 말에 "다른 방송에서 김풍 씨가 한 말이다. 부동산은 집 뿐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영화 '신과함

께' 정산 관련 질문에 "1편, 2편, 해외 상영까지 마무리 한 후 정산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가상 캐스팅을 해봤는데 배우 정석용 씨가 원작 캐릭터와 많이 닮았다"라고 하며 차태현의 캐스팅에 "영화 계약을 하고 5년 정도 지났다. 당시에는 차태현 씨가 너무 젊어서 생각을 안 했었다. 그런데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하셨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uropa@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슬픔을 전디는 방식(4)

“그런데 말이야. 정말 죽은 사람만 불쌍해. 엄마가 돌아가고 모든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갔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토록 상쾌한 것인지 난 몰랐어. 펄에서 걷다가 밖으로 나와 걸으면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가볍지. 한 사람의 죽음을 척 밟고 올라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마흔이 넘어서야. 사람의 이기심은 그래. 마흔이 넘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 마음을 돌아보아도 내 생활에 하등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기심이 배운 적선 같은 것일지도 몰라. 그러면 어때. 난 그때야 정말 엄마를 위해 울었어. 한 일주일 동안 문 걸어 잠그고 울었어. 내가 울 때 우리 남편이 방 앞에서 뭐랬는 줄 아니? ‘여보... 다 그런 거야. 누구나 다 겪는 거래. 당신 갱년기 시작인가 봐’ 이러더라고. 아무튼 그 뒤로 난 엄마의 머리를 좀 더 잘 빗겨 드릴 걸 하는 생각을 하곤 해.”

은미가 2층 연립 주택을 지을 때 조각난 평수 때문에 방 하나와 화장실 하나만 넣은 맨 끝 호로 이사를 하고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은미의 학교 성적이 시험 볼 때마다 올라갔다. 공부만 한 은미는 대학을 들어가고 아버지는 은미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꼬박꼬

박 송금했다. 은미는 외로웠지만 생활고는 사라졌다. 연애도 하지 않고 공부만 했다.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아버지가 준 돈으로는 그림, 무용, 스포츠를 배웠다. 그 과정은 다분히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 연애에 시간을 빼앗길 새가 없었다. 그런 은미를 친구들은 ‘마녀렐라’라고 불렀다. 신데렐라를 꿈꾸는 마녀쯤으로 해석되는 그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았다. 맞으니까. 그 말이 백번 맞으니까 말이다.

“정희야. 내가 그렇게 지독한 청춘을 살면서 가끔 너를 생각했어. 어린 네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생각했지. 그 눈빛의 정체를 잘 모르면서도 무지 기분 나빴거든. 왜 네가 나와 동급으로 놀려고 하지? 하는 듯한 그 눈빛 말이야.” “은미야 그 정도는…….”

나는 말꼬리를 흐렸지만 정말 그랬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보니 은미와 나는 거의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자신을 에두르고 있는 건딜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칠 궁리만 하는 하루하루로 이어진 청춘을 살았던 것이다.

초가을로 접어들 무렵 갑자기 싸늘해진 어느 날이었다. 난 살에 살짝 소름이 돋을 정도의 쌀쌀함을 즐겼다. 바람이 귀밑을 스치며 머리카락을 살짝 밀어 올리면 난 등을 쪽 꺾고 호흡을 깊게 한다. 모든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마치 난 활시위에 올려진 활처럼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느낌이 종종 들곤 했다.

“엄마 나 대학 갈 거야” “미친년. 우리 집 형편에 무슨 대학을 네년이 간다고 뻔대!! 년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여상이나 가. 거기 가면 은행 취직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하더라.”

그런 논쟁이 있은 후 난 공부에서 손을 놓았다. 60명 중 50등 정도 했다. 공부 자체를 안 했다. 시험도 대충 보고 시험 시간에 잠을 자 버리기도 했다. 대신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다 읽었다.

“엄마 진학 상담 오래.”

엄마가 한껏 옷을 차려 입고 진학 상담을 왔지만 엄마는 중학교 3년 내내 내가 몇 등을 하는지 알 수도 없었다. 성적표를 보자고 한 적도 없고 등록금을 제일 먼저 주니 그것으로 할 도리를 다한 양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 숙제를 안 해도 필등을 해도 엄마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엄마가 차려 입고 나선 것을 보면 그래도 기대는 했었던 모양이다. 난 초등학교 때 선생들과 엄마에게 골탕 먹이는 방법으로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선택했듯이 중학교 때에도 나를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엄마를 골탕 먹고 있었다.

“어머니 정희는 삼류 상고도 갈까 말까예요. 고등학교를 포기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등록금도 젤 먼저 주곤 했는데 개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나요?” “정희는 공부에 아예 취미가 없어요. 일찍 다른 길을 찾아 보세요.”

엄마가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교무실을 나왔다. “엄마 왜 그래? 대학교를 갈 것도 아닌데 공부 못하면 어때서 얼굴이 그래 갖고 나와?”

내가 엄마를 노려보며 말했을 때 엄마가 내 등짝을 심하게 후려 때렸다.

“이 배라먹을 년, 제 오라비 등록금 꼬박꼬박 가로채서 먼저 갖고 간 대가가 이거야?”

다음 호에 계속...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문 문학상 평론 부문을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사탕』을 발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린다』 『엄마의 연애』, 산문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바람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코리아리터처(koreanlit.com)를 운영하고 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축 개업 25주년

저희 태양자동차를 찾아주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지식/오랜 경험! 태양 자동차 공업사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Prime Motor Group

Fast, Fair & Simple



J1 VISA 리스 할부 가능



2018 Hyundai
Elantra SE

Lease:
\$8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19,175



Automatic, FWD

2018 Hyundai
Sonata SE

Lease:
\$9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3,145



Automatic, FWD

2018 Hyundai
Tucson SE

Lease:
\$10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5,225



Automatic, AWD

2018 Hyundai
Santa Fe Sport

Lease:
\$12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7,820



Automatic, AWD

2018 Hyundai
Kona SE

Lease:
\$13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1,875



Automatic, AWD

2018 Hyundai
Tucson Limited

Lease:
\$18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33,370



Automatic, AWD

2018 Hyundai
Santa Fe SE

Lease:
\$18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34,990



Automatic, AWD

2018
CONSUMER
SATISFACTION
AWARD

DealerRater

36 month lease with 10,000 miles per year. All lease prices exclude sales tax, title, \$650 acquisition fee and \$495 documentation fee. Taxes are additional. No security deposit.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Valued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vehicle distributed by Hyundai Motor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Competitive Coupon. Competitive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 See your local dealer for program details and list of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Valued Owner Coupon. All offers expire 09/04/2018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It's time for **Prime** MOTOR GROUP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65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시카고에 사는 '초등 친구'를 만나 행복한 수다를...

지난 8월 초 시카고에 문학 행사가 있어 '행사'와 '문학기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다녀왔다. 시카고에 초등학교 친구가 살고 있어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오래 묵은 수다 보따리를 밤새 풀고 보스턴 집에 돌아왔다. 친구가 사는 삶이 어찌나 예쁘던지 덩달아 나도 행복했다. 그녀의 환한 해맑은 웃음이 삶 속에서 절로 흘러넘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착하고 눈물이 많았던 아이였다. 40년이 훌쩍 지나 만났어도 어릴 적 그 말간 모습이 그대로인 친구가 고마웠다.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을 지켜온 친구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웠다.

친구의 남편은 27년 전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매사추세츠주 '하버드 대학교'에서 '포스트닥터'를 받았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UIC)에서

교수가 되었다. 친구는 초등 선배와 결혼을 해 친구의 남편은 '내 선배'가 되기도 한다. 이번 시카고 방문을 하며 친구와 친구의 남편(선배)과 셋이서 어릴 적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많이 즐겁고 행복했다. 어릴 적 시골 작은 마을의 아이들이 자라 넓

고도 너른 땅 미국의 중심 도시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자리매김하며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었다.

친구는 살림꾼이었다. 집 밖에 단정하게 정리된 채소밭을 보면서 나는 그만 감동하고 말았다. 오이, 고추, 상추, 호박, 토마토, 미나리 등 여러 채소가 푸릇푸릇 잘 자라고 있었다. 또한, 깔끔한 음식과 단정한 집안 꾸밈 정갈한 집안 풍경이 친구의 검소한 생활이 그대로 느껴졌다. 30년 전 유학생 와이프들이 많이들 그렇듯이 부모의 후원 없는 남편 공부를 위해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곁에서 얼마나 많이 버거웠을까. 그 시간을 잘 견디고 그 세월을 잘 감당했을 친구가 참으로 대견하고 고맙고 멋지고 아름다웠다.

그 시간이 있어 오늘의 감사한 날이 있다고 말하는 친구가 참으로 고마웠다. 유학생 와이프로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 아끼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눔과 누림을 배울 수 있었다는 친구의 말에 더욱 감동이었

다. 그저 넉넉하지 않아 밖에 나가 외식을 삼가했으며 집에서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만들어 가족과 나누었고 누렸다는 것이다. 먼 곳에 여행 갈 여건이 아닐 때는 가까운 곳에서 여행 간 사람처럼 즐겼으며 자신의 여건에 맞춰 충실히 살아왔다는 것이다.

2년 전 처음 40년 만에 초등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다. 미국에 세 아이가 살고 있었다. 보스턴에 사는 나와 시카고에 사는 친구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다른 친구 그렇게 셋이 살고 있었다. 2년 전 가을 한국을 모두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친구는 개인 사정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다른 초등 친구들과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오십 중반에 오른 친구들은 각자의 길에서 모두들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시카고에 사는 친구가 친구들을 보며 자신은 남편 뒷바라지와 살림만 하고 산 것 같다고 말을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에게 나와 함께 몇 친구가 말을 해주었다. 그래도 교수 남편을 둔 사람은 '너 하나'라고 말이다. 남편이 교수가 되기까지 어찌 혼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해주었다. 남편의 교수 자리 반은 '너의 자리'라고 말을 해 준 것이다. 누군가의 옆자리에서 여유롭게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던가. 자식을 키워놓고 자식이 자신의 길에서 자리매김하며 사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런 흐뭇함과 고마움 같은 것 말이다. 친구는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히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이다.

친구는 교회의 봉사에도 열심히었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남편이 교회의 장로였다.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타고난 성품이 어떤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 친구의 삶이 경험을 통한 지혜의 깊이가 있고 무엇이든 품을 줄 아는 너른 가슴이 있어 더욱 좋은 것이다. 가정을 살리는 4가지 생명의 씨(땀씨, 숨씨, 말씨, 마음씨)가 있다 들었었는데 바로 그 씨앗 네 개를 모두 갖춘 사람이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카고에서 고마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한담객설閑談客說: Where is the beef?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고깃국은 종류가 다양하다. 설렁탕, 곰탕, 소꼬리 곰탕, 등등. 고백하건대, 내게는 아직도 구별이 쉽지만은 않다.

한국 군대 졸병시절이다. 명절이면 고기국이 나왔다. 우스개 말이 퍼졌다. '황우통과탕' '소가 목욕한 물.' 고기점은 없고, 국물은 멀었다는 말이다. 기쁨기는 떠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외치고 숟가락을 들었다. 눈물겹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았지만 감사했던 거다.

몸에 한 세상 떠 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어

이 세상에서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파고다공원 뒤편 순대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 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황지우, 거룩한 식사 중에서)

'Where is the beef?' 도대체 알맹이가 무엇이나? 아버지 부시대통령이 말했지 싶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80년대 중반 한창 대통령 선거유세 중이었다. 디베이트중, 먼데

일 대통령후보가 했던 말이다. 상대방의 'New idea'란 장광설에 대한 한방 반격이었던 거다. 당시 햄버거가게 Wendy가 펼쳤던 선전문구였다.

아마 그 즈음 일거다. 중국유학생들이 마약 들어오기 시작했다. 같이 공부하던 중국학생에게 누군가 물었다.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더냐. '햄버거.' 주저하지 않고 되돌아온 대답이었다. 제 나라에선 아직 소고기 비쌌 적이었다. 그 친구, 'Where's the beef?' 라고 말하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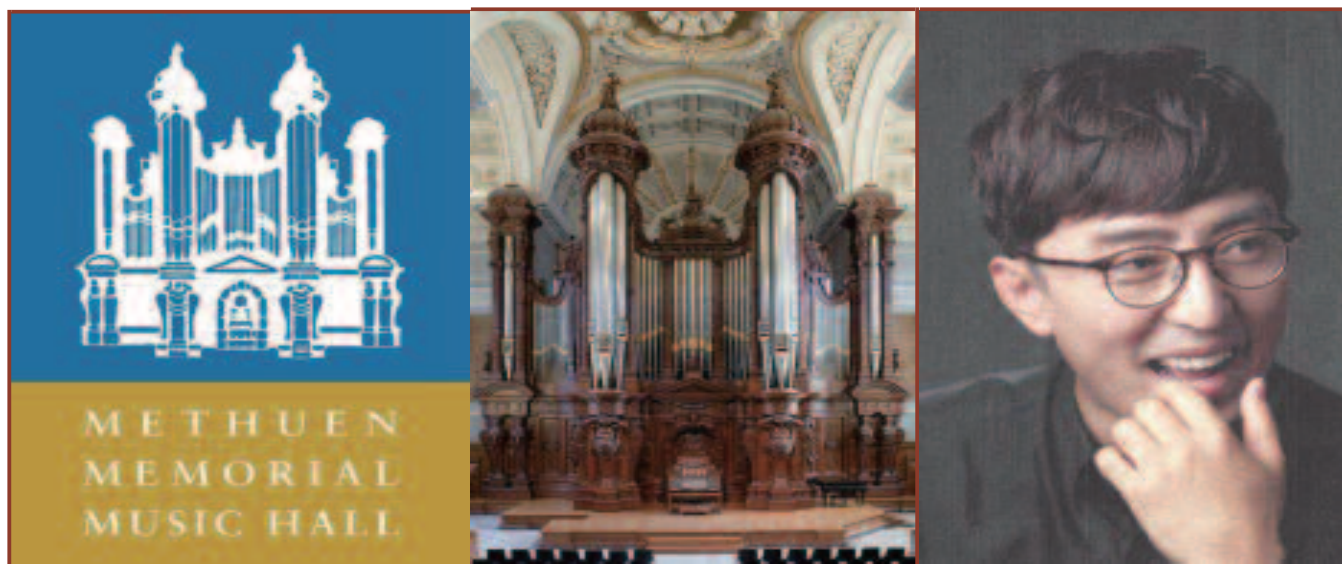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난 다음이다.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알맹이가 없다고 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로 돼 있단다. 완전 비핵화인데, 그냥 노력만

하기로 했다는 거다. 누군가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Where is the beef?' 고기 없는 햄버거는 상상할 수 없다.

정치는 허업虛業. 돌아간 김종필 전국무총리가 했던 말이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정치는 건더기없는 맹탕인데, 기대하지도 않는다. 외교도 마찬가지일까? 하지만, 남북문제만은 제발 허업虛業이 아니면 하는 바람이다. 두툼한 고기에 먹을 만한 햄버거를 기다린다. 앙꼬 없는 찐빵이 되지않기를 빈다.

설렁탕엔 국수사리가 들어가야 한다. 당면이던가?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창세기 27:25)



METHUEN MEMORIAL MUSIC HALL

신동일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 8월 22일 (수) 오후 8시

192 Broadway (Rt. 28), Methuen, MA

후원: Campbell Steward; 여행비 후원: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Works by Messiaen, Bach, Dupré and Elgar

Tickets : Adults: \$12, Children: \$5 전화 문의: 781-223-4411

고객님의 미래 목표 달성을 도와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인 은퇴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서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Hiro Onuma, RICP®
Agent,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201 Jones Rd., 5th Floor
Waltham, MA 02451
781-398-9131
honuma@ft.newyorklife.com
www.hiroonuma.com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securitie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SMRU1731206
(Exp.03/28/2019) ©2018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51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0

Insure. Invest. Retire.

Be good at life.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챕터7 파산보호 관련 (5)

이번주에는 동산/부동산 자산이외에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리스계약이나 다른 계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행정적인 절차 후 파산보호 명령을 받음으로써 긴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것과 그 이후의 일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 리스 관련]

만약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분이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계약이나 리스를 가지고 있다면, 트러스티는 해당 계약이나 리스에 여러분 대신 자기들을 계약 대상으로 넣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위 트러스티 것처럼 가정하고 비담보 채권자들 (unsecured debt creditors)을 위해 해당 계약을 집행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계약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거절" 하게 되는데, 이렇게되면 여러분이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당시에 상가에 5년짜리 리스 계약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이 상가 리스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아직 몇년이 남아 있다면 트러스티는 이 리스를 제3자에게 현 시세에 맞춰 양도하여 비담보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 이런 경우, 트러스티는 이 리스계약을 경매에 부쳐 최고 낙찰자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비록 리스계약에 양도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트러스티는 이런 조항을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러스티 역시 이런 양도행위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냥 채무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놔둘 것입니다.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디폴트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렌드로드와 다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물품도 리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사업장비 등이 그러합니다. 개인물품이나 사업장비는 상업용 건물 리스와는 조금 다르게 트러스티가 가져다가 파는게 아니고, 채무자가 개인물품이나 사업장비의 리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유지하는 조건은, 개인물품 혹은 사업장비를 빌려준 업자에게 달렸고, 보통은 밀린 금액의 완납을 요구합니다.

[파산신청 후 변제 명령이 나올때까지]

341 히어링을 하고 난 후 60일 정도 지나면 파산 법원으로부터 변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명령서를 받아 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

은 "That's it?" "이게 전부인가요?" 입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내용보다는 매우 포괄적이고 간결하게 씌어진 변제 명령서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개개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빚이 변제 되고 어떤 빚이 변제되지 않고 살아 남는지 설명이 있습니다.

[미국인 변호사에게 파산보호 신청을 의뢰하신 분들 중...]

그래서 간혹 파산 보호를 신청하여 변제 명령을 받은 분들이 종종 제 오피스에 전화해서, 어떤 것이 변제되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여차저차한 이유로 미국인 변호사를 통해 파산보호를 신청 하였는데, 종결되었다고 최종 통지만 오고 아무리 봐도 어떤 빚이 정리되었는지 알수가 없다는 사연입니다.

담당하였던 미국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파산 변제가 되었으니 법률서비스가 종료되었다는 얘기만 들을 뿐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하는 현실인가 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화장실 다녀오기도 개운치 않은 느낌이라 할까요?

[파산을 통해 자동적으로 변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채무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신경쓰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었어야 합니다. 간혹 상당량의 빚을 변제 받으면서, 정말 값을 의무가 없어지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변제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라고 저도 누누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자신이 무엇이 변제되고 무엇이 여전히 지불의무가 남아있는지 아실 수 있기 때문이죠. 긴 고통을 거치고 난 후 받은 변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대표적 채무는

- 양육수당, 세금, 학생융자금은 자동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변제비 대상으로 판단한 채무들입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는, 채권자가 파산보호 신청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채권자가 이기는 경우거나 고의나 악의 혹은 기망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주로 그렇습니다.

학생융자금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 파산보호를 통해 채무변제를 허용하고 있으니, 이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가 안좋아 취업이 안되서 값을 수 없음은 허용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39 화랑세기花郎世紀,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文弩(29)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문노는 무예의 수련을 통하여 완벽한 수신修身을 하였다. 그는 음주와 가무 등 잡기를 멀리하였고 못 낭도들이 유희遊花들과 함께 노닐곤했지만 문노는 전혀 난잡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세속5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심신을 수양하고 인격을 도야하였다. 그리고 처妻로서 가장 본보기가 된 윤궁과 혼인한 후론 자신 또한 가장 모범적인 지아비가 되었다. 그는 수신과 제가를 훌륭히 하였으며 신기에 달한 자신의 무예와 넓은 포용력을 바탕으로 그를 따르는 낭도들을 이끌며 군주 진평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진흥왕이 확장한 신라의 영토를 지키는데 일조하였다. 당대의 호걸들인 이사부, 거칠부, 김무력 등의 장군들을 도와서 후일 삼국을 통일할 수 있도록 신라를 부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가 남긴 많은 족적은 김유신과 김춘추 등으로 하여금 그를 '사기士氣의 으뜸'으로 추종하게 하였다.

그는 69세의 나이로 606년에 사망하였다(건복建福23년). 부인 윤궁낭주도 같은 해에 죽었으며 그녀는 59세였다. 그리고 그의 화상은 포석사에 봉안되었다. 그리고 살아서 오르지 못했지만 최고 관직인 각간에 추증되었다(그의 막내 아들 금강은 후일 김춘추가 태

종무열왕으로 즉위하면서 최고 관직인 상대등에 올랐다. 각간은 상대등의 다른 이름이다). 포석사에는 왕들이나 호걸들의 화상이 봉안된 것으로 보여지며, 한 쌍으로 같이 있었던 신궁의 선단에서 대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기록들로 볼때, 927년 견훤이 9월에 고을부(현 영천)를 침입하고 나서 11월에 왕경까지 쳐들어 왔을때,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비빈들과 종척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유희를 즐긴 것으로 삼국사기에 나와 있으나, 잘못된 기록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견훤이 이미 영천까지 2개월 전에 쳐들어 와서 왕궁을 넘보고 있었는데 잔치라니!... 오래전 쇠약해진 국력으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경애왕은 아마도 선대왕들과 그간 신라를 호국해온 영웅호걸들을 모셔 놓은 신궁에서 구국의 대제를 올리고 있었으리라 짐작해본다. 화랑세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문노는 젊어서 지극히 방정하고 빈틈이 없었는데, 윤궁을 처로 맞이한 후로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화목함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사람들이 모두 부인이 남자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부부를 말할 때는 반드시 공의 부처를 들며 말하기를, “지아비를 택하는데는 마땅히 문선화와 같아야 하고, 처를 얻는 데는 마땅히 윤낭주와 같아야 한다” 했다.

포석사에 화상을 모셨다. 유신이 삼한을 통일하고 나서 공을 사기의 으뜸宗主으로 삼았다. 각간角干으로 추증하고, 신궁의 선단에서 대제를 행했다. 성대하고 지극하다! 공은 건복建福23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나이가 69세였다. 낭주는 이해에 공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선仙이 되었다. 공보다 10살이 적었다.

찬하여 말한다: 가야의 외손이고 사기의 으뜸으로 선仙의 꽃이 되니 우리의 국풍國風을 떨쳤다.]

문노의 세계世系를 따라가면서 신라의 대영웅 문노가 떨쳤던 국풍을 함께 느껴본다. 문노의 아버지는 비조부比助夫이고, 할아버지는 호조好助이며, 증조부는 비지比知이다. 문노의 어머니는 문화공주이다. 문화공주는 가야 북국왕인 찬실의 딸로 추정 된다. 한편 조가 이뇌왕을 내쫓고 왕이 된 찬실은 야국왕의 사위였다. 그리고 문노의 어머니 문화공주는 어머니가 야국녀일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설은 문화공주가 야국에서 조공한 여자라는 것이다. 또한 야국은 왜국일 가능성이 크다(문노의 할아버지 호조는 '가야통'이었다. 가야와의 외교사를 잘 처리하여 자주 가야 사신으로 갔다. 문노의 아버지 비조부 역시 호조의 뒤를 이어 가야와의 외교관계를 도맡아 하였다). 이 문화공주가 신라에

조공으로 바쳐졌는데 법흥왕이 호조에게 첩으로 삼게하였다. 그런데 문화공주는 호조의 아들 비조부와 사통을 하여 문노를 낳았다. 비조부는 어머니가 선혜부인이다. 선혜왕후는 소지왕의 정비였는데 중僧 묘심과 사통하다가 들통이 나서 묘심은 주살되었고, 선혜는 폐비가 되어 출궁 당하였다(삼국유사, 기이편에 전하는 '사금갑설화'의 모델이 선혜와 묘심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출궁당한 선혜는 호조와의 사이에서 비조부와 양화공주를 낳았다. 그리고 법흥왕이 가야의 왕으로 삼은 이뇌에게는 양화공주를 비로 삼게하였다. 이뇌와 양화는 태자인 월광과 마지막 왕인 도설지와 월화공주(진흥왕의 후비)를 낳았다. 그 뒤 561년 도설지가 많은 야인들을 거느리고 신라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진흥왕은 이사부에게 진압을 명했고, 15.6세의 어린 사다함은 참전을 자원했지만, 수하에 500여명의 낭도를 거느린 문노는 어머니의 나라를 칠 수 없다면서 참전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나무위키,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자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자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비즈니스 시작하기 (6)

고용주의 고용관련세금(Employment Taxes)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주(employer)는 고용 관련세금(Employment Tax)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주는 이에 대해 살펴보자.

고용 관련세금은 다음과 같이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과 '주(states)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나뉘어진다.

연방정부 세금	주정부 세금
연방 소득세원천징수액	주정부 소득세원천징수액
사회보장세	-
연방 실업세	주정부 실업세
	직원교육훈련기금(WTF)
	고용주의료지원금(EMAC)

1.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고용관련세금으로는 ①직원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및 ③연방실업세(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가 있다.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액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할 급여액에서 직원의 연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정해진 기한내에 IRS에 납부해야 한다(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원천징수할 금액은 급여액의 규모, 결혼 여부, 직원의 부양가족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직원이 제출한 Form W-4에 기록된 공제대상자수를 바탕으로 원천징수세액표(또는 세율표)를 적용해 계산한다. Form W-4를 제출하지 아니한 직원의 경우, 그 직원을 독신자로서 공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표를 적용한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개인소득세는 아래에

서 설명할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와 합산해 분기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Form 941). 다만, 소규모사업자(연간 원천징수세액이 \$1,000이하인 자) 중 IRS로부터 연간납세자로 통보 받은 고용주는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할 수 있다(Form 944).

그런데 직전분기 또는 당해 분기에 원천징수한 연방소득세와 고용주 및 직원이 부담한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의 합계가 \$2,500이상이면 이를 예치스케줄에 따라 미리 예치(deposit)해야 한다. 예치방법은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경우(semiweekly deposit schedule)와 매 월 하는 경우(monthly deposit schedule)가 있는데, 기준기간(lookback period)의 세금이 \$50,000이하면 매월 예치하고 이를 초과하면 일주일에 두 번 예치해야 한다.

사회보장세

고용주와 직원은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에 따라 각각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야 한다. Social Security Tax는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직원급여(2018년의 경우 \$128,700한도)의 6.2%씩 총 12.4%를 내야 하며, Medicare Tax의 경우 고용주와 직원은 각각 급여(한도 없음)의 1.45%씩 총 2.90%를 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부담분 7.65% (Social Security Tax: 6.2% 및 Medicare Tax: 1.45%)를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후, 이를 고용주부담분 7.65% 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연방실업세(FUTA)

실업세는 실직자의 실업급여 등의 재원마

련을 위한 세금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고용주는 급여액(개인당 \$7,000 한도)의 6.2%를 FUTA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주(states)정부에 주정부 실업세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그 금액(최고 5.4%한도)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된다.

예를들어, 직원에게 \$1,000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방실업세는 \$62(=\$1,000 x 6.2%)이다. 그런데 MA주에 주정부 실업세로 \$40납부했다면 연방실업세는 \$22(\$62-\$40)만 납부하면 되고, 주정부 실업세를 \$60납부했다면 연방실업세는 \$8 (\$62-\$54: 주정부실업세는 최고 5.4%만 인정되기 때문)을 납부해야 한다.

연방실업세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IRS에 신고해야 하며(Form 940), 납부(deposit)는 분기별로 분기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즉, 납부기일은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이다.

2. MA주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

고용주가 MA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①주정부 개인소득세, ②주정부 실업세(SUTA: State Unemployment Tax Act) ③그리고 기타 직원교육훈련기금(WTF: Workforce Training Fund) 및 고용주의료지원금(EMAC: Employer Medical Assistance Contribution)이 있다.

MA주정부 개인소득세

고용주는 급여지급시 연방정부 소득세뿐만 아니라 MA주정부 소득세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방법은 연방정부 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과 비슷하여, 직원에게서 징구한M-4에 근거하여 공제대상수를 결정하

고, 이를 MA주에서 별도로 제시한 원천징수세액표(또는 세율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면 된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은 1년간 예상 총 원천징수한 금액(Projected annual withholding tax collected from all employees)의 규모에 따라 연간, 분기별, 월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Form M-941A, Form M-941, Form M-942 또는 Webfile 사용). 다만, 매월 7일, 15일, 22일 및 말일의 원천징수액이 \$500이상이면 그 날로부터 3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MA주 실업세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액(개인당 \$14,000한도)의 일정율을 MA주 실업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 적용율은 고용주의 직원수, 급여액 규모, 고용주의 이직율 등의 차이로 인해 고용주마다 다르다 (어느 고용주는 3%인데 반해 어느 고용주는 1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음). MA주정부는 매년 각 고용주가 적용해야 할 율을 고용주에게 통보해 준다.

납부기한은 연방실업세 납부기한과 동일하다.

고용주의료지원금(EMAC)

평균 직원수가 분기별로(Quarterly) 6명 이상이면, 고용주는 EMAC(Employer Medical Assistance Contribution)를 내야 한다. 적용대상 급여는 최초 \$15,000까지이며, 적용율은 EMAC대상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0.18%, 0.36%, 0.51%이다.

적용연도	적용율
1,2,3년	면제
4년	0.18%
5년	0.36%
6년이상	0.51%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세무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 REGISTRATION FORM - 2018 Fall Semester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2018 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서

www.ksneusa.org

- **수업 기간:** 2018년 9월 15일 ~ 2019년 1월 19일 * **신입생 소집일:** 9월 8일 2018년 *
- **학교 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C/o) Oak Hill Middle School
- **등록 마감일:** * **재학생:** 7월 31일 * **신입생 및 편입생:** 8월 31일까지 (이후 등록시 Late Fee 추가)
 - ▶ 기초준비반(병아리반) 신입생 등록 안내: 2018년 9월 1일 기준 약 2.5세의 아동
 - ▶ 기초-1 과정 신입생 등록연령: 9월 1일 기준 3.5세 이상 (교사 지원자 자녀 예외-문의바람)
- * **오전반 수업시간 및 과목(9:30am~12:40pm):** 한국어·한국역사·문화·음악교육·작문교육·서예반·사물놀이
- * **오후반 수업시간 및 과목(12:45~1:45):** 미술 1반·민화반·발레·태권도·서예반·사물놀이·한국무용
- * **수업료:** 1) 오전반 : \$340/1인, \$620/2자녀, \$770/3자녀 (한 가족)
2) 오후반(선택과목) : \$130/1인
3) 병아리반 : \$180/1인(2.5세 이상)*선택순 마감
- ♡ 분납 요청: 한 가족 2인 이상 자녀 등록 때 3회까지 분납하실 수 있고, 교사지원 가정은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 분납 일정: 1회 분납 (7월 31일까지), 2회 분납 (8월 31일까지), 3회 분납 (9월 15일까지)
- ☞ **등록 마감일 이후 Late Fee: \$20** (마감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1가정)
- ☞ **선생님을 모십니다! (오전 & 오후 특별활동):** 아이들을 사랑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분을 모십니다!
 > 2세들을 위한 보람있는 한국어 교육에 동참하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나 연락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www.ksneusa.org

교장 남 일 (508) 523-5389 (C) Email: ksneusa@verizon.net & koreanschool.ne@gmail.com

----- ✂ ----- < 2018 학년도 가을학기 등록부 ✂ 점선을 자른 후 제출합니다 > ----- ✂ -----

◆ 재학생의 경우는 주소 및 정보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아래 *표 부분만 기재합니다 ◆

*한글 이름(Name/한글): _____	*영문 이름(Name/영어): _____
생년월일 (DOB): _____	*학년(2018 봄학기 반 이름): _____ 반
성별: 남 (Male) _____ 여 (Female) _____	*출생도시: _____ *미국입국년도 _____
부모/보호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집 주소: _____	* Email : _____
* Cell /main () _____	* Cell/2:() _____
비상연락처 (관계) _____	Phone: () _____

* 신입생만 기재 (New Students Only) ----- 한글 사용 능력 (Korean Level) ----- *가능한 자세히 기록해 주십시오. *

듣기 (Listening level): _____	
말하기 (Speaking level): _____	
읽기 (Reading level): _____	
쓰기 (Writing level): _____	

오전반 수업료: \$ _____	\$340/1자녀, \$620/2자녀, \$770/3자녀 (*한 가족) *병아리반: \$170
오후반 수업료: \$ _____	\$130.00 (1 st Choice _____), (2 nd Choice _____)
기부금*: \$ _____	(Tax Deductible)
총액: \$ _____	(Tuition + Add \$20 of late fee after Aug. 1, 2018)

* 학부모님께 기부금(Donation)을 부탁드립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연방 및 주정부에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서 후원하신 기부금은 세금공제혜택(Tax Deduction Benef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금 수표 payable to: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or 'KSNEUSA'**

* **등록서류 보내실 곳:**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등록금 수표와 함께) Il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88)

상속 트러스트(Trust)의 종류

천국은 나를 기다려 주는데 상속계획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언제 하늘나라로 가는지 모르기에 살아있을 때 미리 상속 준비를 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주위에 친구나 친지들도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통계상 남자가 먼저 가기에 남아있는 여성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트러스트 등이 필요하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트러스트를 설정하기 전 트러스트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트러스트가 나에게 필요한지 등을 질문한 다음 트러스트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트러스트 종류는 영어로 직접 표현합니다.

* 나의 총자산이 11 million 이상인지? 그렇다면 Bypass Trust.

* 가족 중에 어떤 장애(Disability)가 있는 가족이 있는지? 대답이 예라면 Special Needs Trust.

* 상속을 받는 사람 중에 돈을 낭비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Spendthrift Trust.

* 하늘나라로 갈 때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인지? 그렇다면 Charitable Remainder Trust.

* 자식이 있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지? 애석(?)하게 그렇다면 Qualified Terminal Interest Property(QTIP) Trust.

* 어떠한 이유로 당신이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못해도 당신의 혜택을 위해서 자산이 사용되기를 원하며 당신이 원하는 상속자에게 자산이 바로 가기를 원한다면 Living Trust.

* 상속하는 자산 일부가 손주들에게 직접 가기를 원하는지? 그렇다면 Generation-Skipping Trust.

여러 종류의 트러스트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 Bypass Trust는 상속자산이 11 million이 넘으면 Bypass Trust 혹은 Shelter Trust, Marital Trust, Family Trust를 설정하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Special Needs Trust란 장애가 있는

가족이 상속 자산을 운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장애로 다른 기관(Social Services)에서 어떤 보조를 상속자산과 상관없이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 Spendthrift Trust는 상속자산인 큰 목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받는 금액의 몇 퍼센트만을 몇 년에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형성하면 살아있는 동안 정해진 수입(Income)을 받고 죽을 때 남은 자산이 원하는 기부단체로 상속됩니다.

* Qualified Terminal Interest Property(QTIP) Trust는 남은 배우자가 다시 결혼하고 죽으면 전 재산이 현재 배우자에게 상속되므로 남은 자식들이 상속을 한 톨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한 트러스트입니다.

* Living Trust는 상속하는 기간이나 여러 복잡한 과정(Probate) 등을 피하기 위한 트러스트입니다.

* Generation-Skipping Trust는 상속세 없이 손자 혹은 증손자에게 상속하기 위한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사람들의 말은 상속 재판소(Probate Court)를 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상속세(Estate Tax)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은 상속수혜자(Beneficiary)를 설정하면 트러스트와 같은 구실을 하기에 원하는 사람에게 바로 상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트러스트를 형성할 이유가 없고 전체 자산이 11 million이하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상속세로 걷은 돈은 전체 세수에 1.4%에 불과합니다. 2016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단 4,400명이라고 한 기관(Tax Policy Center)에서 말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으로 트러스트를 설정하지 말고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 다음 상속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사는 주 정부마다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변호사(Elder Law)와 의논하십시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이민국 동향 - 빈익빈 부익부, 이제 영주권과 시민권도 돈으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각종 비이민 비자 및 취업영주권 심사가 유례없이 까다로워지고 지체된 것에 더하여 이제 이민국은 가족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까지 그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려는 모양새입니다.

8월 둘째 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부조를 이용한 전력이 있는 신청인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시행령 초안이 현재 백악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부조라 함은 연방 생계보조금(SSI)나 빈곤층 현금지원(TANK) 등 극빈층이 지원받는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난방비 등 에너지 보조, 아파트 지원 등 저소득층이 받아온 프로그램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들도 이용해온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이나 아동건강보험(CHIP) 등의 공공복지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민법 규정에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시 기존에 공적 부조에 의존해온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당 규정을 집행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기각시킨 것은 공적 부조를 악용한 경우 제외하고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실제 빈곤층으로의 수혜자격을 입증하거나 또는 응급상황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이라면 정부 보조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공적 부조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생기기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부모가 미국에서 태어난 자신의 시민권자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CHIP) 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모는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초안은 예로부터 가족 이민 신청시 요구되는 청원인(및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 최저금액 상한선을 두 배로 대폭 올리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청원인/재정보증인의 연 소득은 연방 최저소득선(poverty guideline)의 125%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5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가족이민영주권 신청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2인 가족의 경우 최저소득이 \$20,575, 3인 가족일 경우에는 \$25,975, 4인 가족일 경우 \$31,375, 그 외 한 명씩 늘수록 어렵잡아 \$5,000씩 증가됩니다. 즉, 시민권자 아내가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2인 가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민권자 청원인의 연간소득이 최소 \$20,575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해당 가족의 최저소득은 4인 가족 소득에 해당하는 \$31,375가 되어야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본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2인 가족일 경우 \$41,150, 4인 가족일 경우에는 무려 \$62,750의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원인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자 청원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앞으로 가족 영주

권 신청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점은 본 시행령은 백악관 예산심의실만 통과되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 및 고시된 이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현재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서둘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경험많은 변호사들과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의 주제로 고려하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송동호

종합로펌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임대임,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상법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com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 T 617.489.1327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융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런드로맷, 서머빌/매드포드지역, 연매상 230,000+, 사이즈 2000sq+
머니메이킹, 아파트 주거지역,

세탁소 풀 플랜트, 워터타운/월담지역, 연매상 185,000+ 좋은 지역

Reflexology(리플렉솔로지:손발건강 관리), 연매상 \$700,000, 연 순수익 \$250,000
아주 변화한 좋은 장소

보스턴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턴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턴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턴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턴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턴 북쪽 드랍+아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턴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여름방학 단기4주 집중 프로그램

- 기간: 7/30-8/24/2018(M-F)
- 대상: SSAT program-Jr. High 8th & 9th / SAT1 program-High school 11th & 12th
- 강사진: Heather Morton, Kristin Frank, J.H. Choi
- 수업 자료: College board 포함, 실용 연습 문제 선집
- 참가 비용: 수업료- \$1,800(4 주)/ 재료비-\$100 별도
- 모집 인원: 6명 제한(수강료 납부 시, 등록 확정)

	SSAT	SAT1
09:00-12:00	Verbal, Reading & Math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2:00-01:00	Lunch	Lunch
01:00-04:30	SSAT Practice Test(2.5h)	SAT1 Practice Test(3.5h)
04:30-05:30	Note-taking & Study Hall	Note-taking & Study Hall

보스턴 교육원은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지원, 그리고 현지 가디언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컨설팅업체로써,
20년 전통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내, 공립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주중,말 학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름 방학 4주 단기 집중 프로그램에서는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형 수업이 SSAT와 SAT를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테스트 가이드라인과 문제 유형 별 선답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전략들이 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진들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다.(필요시, 부모 마음 점심도 별도 신청 가능)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턴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